

인권정보자료실
R1.1.15

인권아루소식

제1647호 ~ 제1768호

합본 15호
(2000년 7월 ~ 12월)

인권정보자료실

합본 15호

2000년
7월 ~ 12월

인권정보자료실
R1.1.15




인권운동사랑방



인권운동사랑방

110-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-29 (4층) 전화 741-5363 팩스 741-5364

 인권운동사랑방

인권하루소식

합본 15호

(제1647호-제1768호)

차 례

부록 인권하루소식 합본 15호 색인 /279

제1647호(2000. 7. 1) / 1

- 1면 · '노동자 탄압' 계속될 듯 - 스위스, 힐튼 호텔에도 경찰투입 공언
- <논평> 의사폐업과 호텔롯데의 '부적절한 관계'
- 2·3면 · 이달의 인권하루소식 (2000년 6월)

제1648호(2000. 7. 4) / 4

- 1면 · '강신욱'은 절대 안돼! - 참여연대, 대법관 후보자 인사평가서 발표
- 경찰투입은 계획된 시나리오 - 건강보험공단, 타결직전 영등한 요구
- 에바다대학생연대, 의장 구속
- 2면 · 민주화운동, 폭넓게 해석해야 -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토론회
- <자료>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- 출처: 참여연대
- 3면 · <인권시평> '행복한 왕자'와 에스키벨과... 강금실 변호사
- <주간인권흐름> 2000년 6월 27일~7월 3일

제1649호(2000. 7. 5) / 7

- 1면 · 각계 인사 108인, 강신욱 반대! - "강 검사 입성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"
- <새로 나온 책> 『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: 불안정노동연구』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연구 모임 지음
- 2면 · "롯데진압 목과할 수 없다" - 9개 시민단체, 진상조사단 구성·책임자 처벌 요구
- 삼성직원, 철거민 폭행
- 명예회복·진상규명 시행령 의결
- 매향리, "더이상 속지 않겠다" - 국방부 대책 발표에 주민, 시민사회단체 일제 반발

제1650호(2000. 7. 6) / 9

- 1면 · '성희롱', 사용자 책임을 묻는다 - 호텔 롯데 183명 집단소송, 여성·노동계 사용자 고발
- 민주화운동가 농락마라 - 송두율 교수 입국불허 규탄
- 2면 · "이사장을 보호하려 했다" - '노조폭력' 언론보도, 공안정국 조성용 아니냐?
- 부당전출에 내몰린 한 철도 노동자의 죽음

제1651호(2000. 7. 7) / 11

- 1면 · 이철용씨,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-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
- 평택시, 에바다 정상화 의지 없다 -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
- <만화사랑방> 준법서약서, 입국거부

- 2면 · “대통령은 사과하라” - 민주노총 대규모 시위, 전국으로 확산
- 초·재선의원 ‘국보법 폐지’ 주장
- 준법서약서는 인권유린제도
- 합법과 비합법은 정부 마음 - 여기서 물러나면 방방곡곡에 경찰이 투입될 것

제1652호(2000. 7. 8) / 13

- 1면 · 강신욱 반대 넘어 진실규명으로 - 대법관 인사청문회, ‘유서사건’ 공방
- <논평> ‘강신욱 대법관 만들기’에 공모하는 그대들에게
- 2면 ·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증계

제1653호(2000. 7. 11) / 15

- 1면 · “대법원 판결, 누가 믿고 따를까?” - 강신욱 검사, 결국 대법관 인준
- 경찰, 단병호 위원장 집단구타
- ‘휴대용 신원조회기’ 철회 요구 - 지문날인 거부 78+
- 2면 · <인권시평> 정신 (김규항 아웃사이드 주간)
- <주간인권호름> 2000년 7월 4일~7월 10일

제1654호(2000. 7. 12) / 17

- 1면 · 테러진압부대 임무는 노동자 테러? - 설치근거인 대통령 훈령 47호는 대외비
- “시민·사회단체 침묵, 이해 안된다” - 단병호 위원장 삭발, 강패정권이 사과할 때까지 싸우겠다
- 2면 · ‘철도원’ 부당 징계 이어 사법처리 - 부산정비창 공투본 지도부 구속
- 미국의 ‘소파’ 협상안 규탄 - “개정이 아닌 개악이다”
- <새로나온 책> 『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』 - 정인섭 지음

제1655호(2000. 7. 13) / 19

- 1면 · 안산경찰서 고문수사 ‘사과’ - “과장·왜곡” 발뺌에서 “잘못인정”으로 태도바뀌
- 불법연행, 황선동 군 2년 구형
- 롯데 파업은 ‘건물 불법점거 난동’ 이었다? - 테러진압부대, 노동자에 본 때 보이기 위해 투입
- 2면 · “미국의 협상 시안 고려않고 있다” -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여야·외통부 관계자 면담
- “사업주를 처벌하라” - 여성·노동계, 호텔 롯데 성희롱 고발
- 수배해제자 재구속 날벼락

제1656호(2000. 7. 14) / 21

- 1면 · “사람새끼도 아니니 그냥 밟아” - 민주노총·인권운동사랑방 ‘경찰폭력’ 공동조사
- <만화사랑방> 대 테러진압 전투경찰 롯데호텔 노동자에 폭력 휘둘러
- 2면 · 44개 테이프 중 16개는 어디로? - 법원, 호텔 롯데 압수 수색
- 부당해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-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해매

제1657호(2000. 7. 15) / 23

- 1면 · 평택시장, 이사진 구성 밀어붙여 - 에바다 사태 대학생 이순신 장군 동상 위 시위
- <논평> ‘갈등’을 ‘전쟁’으로 만들지 말라
- 2면 ·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- 호텔 롯데 노조, 경찰청장 고소
-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- 노동자·의료인 토론회 한 목소리

제1658호(2000. 7. 19) / 25

- 1면 · “변호사 선임제도 없이 무슨 점건?” - 화성 경찰서의 ‘무지’, 피의자 기본권 제한
- “성희롱 예방 교육 했다” - 호텔 롯데 사측, ‘서명부’ 들고 나와
- 2면 · 국가보안법, 어떻게 할 것인가? - 여야 국회의원 설전
- 공공근로 예산 삭감 마라 - 전국 실업극복 단체 연대회의, 한나라당 당사 앞 농성
- <주간인권호름> 2000년 7월 11일~7월 18일

제1659호(2000. 7. 20) / 27

- 1면 · 소파협정 헌법소원 - “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”
- 사령관 퇴진, 미 대통령 ‘직접 사과’ 해야
- 탑골공원 노인들의 즉석 토론회 - “법적으로 못 따지게 못박아논거, 그게 소파야”
- 2면 · ‘통신질서확립법’ 밀실추진 - 정통부에 권한 집중, 통신검열 우려

제1660호(2000. 7. 21) / 29

- 1면 · “특공대 폭행 있었다” - 최소한 27분간 폭언, 군화발로 짓밟개
- 무리한 기소, 선고 유예 처분 - 황선동 씨 국가보안법 선고 공판
- <만화사랑방> 미국식 생체 실험
- 2면 · “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” - 정보통신부 ‘통신질서확립법’ 공청회, 줄속추진 질타
- <인터뷰> 성기안 (호텔롯데 잠실 연회팀 근무) - “폭력과 공포로 장악한 후 교체됐다”

제1661호(2000. 7. 22) / 31

- 1면 ·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 - “국보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”
- ‘간첩’은 무조건 패소 -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
- <논평> ‘불법정보’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
- 2면 · 학부모·지역 운영위원 신분조회 - 사생활 침해, 운영위원 활동 위축
- <자료요약> 국제앰네스티(AI) 연례 보고서 - 남·북한 99년도 인권상황
- 3면 · <자료요약> 국제앰네스티(AI) 연례 보고서 - 남·북한 99년도 인권상황

제1662호(2000. 7. 25) / 34

- 1면 · “돈 내고 시위하세요!” - 경찰, 시위대 도로사용료 찬반조사
- “국보법의 피해자는 전국민이다” - ‘한국사회의 이해’ 6년만의 ‘무죄’ 선고
- 2면 · <인권시평> 학교에 안나가도 될 권리(공선옥 소설가)
- <주간인권호름> 2000년 7월 19일~24일

제1663호(2000. 7. 26)

/ 36

- 1면 · 서울하늘 찢른 농민들의 분노 - 전국농민대회, “김대중정권 농업정책을 바꿔라”
- 경찰이 때려놓고 시위대 탓으로 날조 - 경찰청 사이트, 사과문 신기로
- “우리 농민 다 죽어..., 앞으로 농사 못 지어”
- 2면 · ‘기지촌’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라 - 새움터 등, 소파개정에 대한 입장 밝혀
- 경총, ‘성희롱’은 목적달성 위한 수단?
- <새로나온 자료집> 『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』 지문날인 거부 224+

제1664호(2000. 7. 27)

/ 38

- 1면 · 아직도 ‘국가대사’가 우선이나 - 민주노총 집회 시위전력 문제삼아 불허
- “경찰이 돈까지 빼앗았다” - 전농, 농민 대회 피해 보상 요구
- 제2회 대학생 인권캠프, 참여자들 한 목소리... “대학 내 인권교육 절실하다!”
- 2면 · “술개 부대원은 짐승이었다” - 롯데 노조원 96명, 특공대 폭행 증언
- 노조원 증언 모음 - 호텔롯데 36·37층 상황
- 3면 · “너무도 기막히고 억울하고 서러웠다” - 이 은(호텔롯데 잠실 면세점)

제1665호(2000. 7. 28)

/ 41

- 1면 · 시설비리 되풀이에 멎드는 장애인 - 성폭행·후원금 횡령, 같은 시설에서 세 번째
- 민주노총 대 정부 총력투쟁 선포 - 지도부 전원 무기한 농성투쟁 돌입
- <만화사랑방> 농민살려!
- 2면 · 손뼉도 마주쳐야, 사측은 어디 있느냐? - 호텔 3사 순회 집회 ‘성실한 교섭’ 촉구
- SOFA, 여성인권침해 금지원칙 필요
- 대인지퇴유실실험 및 정책 토론회 - 전쟁이 없어도 ‘대인지퇴’는 공격 중

제1666호(2000. 7. 29)

/ 43

- 1면 · ‘분쟁’으로 신음하는 말루쿠 - 평화는 멀리 있다, 국제사회 관심 절실
- <논평> 독재자의 집을 꿈꾸는가
- 2·3면 · 이달의 인권하루소식 (2000년 7월)

제1667호(2000. 8. 1)

/ 47

- 1면 · ‘소파개정’ 시늉으로 봐줄 수 없다 - 협상 압박, 사회단체 요구사항 구체화
- 집회·시위 흠집내기 언제까지 - 경찰, 집회 신고시 범에도 없는 각서 요구
- 2면 · 당신의 정의와 평화가 산처럼 일어선다 - 민중의 벗, 서 로벨도 신부 추도식
- <주간인권흐름> 2000년 7월 25일 - 7월 31일

제1668호(2000. 8. 2)

/ 49

- 1면 · 겹데기만 노동시간 단축? - 노동연구원 연구 발표에 노동계, ‘사용자 논리 대변마라’
- ‘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’(한국노동연구원) 주요 내용
- <속보> 징벌 해제 요구에 폭력행사

- 2면 · <인터뷰>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만나
- 주한미군에 한총련 경계령 - “한총련이 너희를 납치할지 모른다”

제1669호(2000. 8. 3)

/ 51

- 1면 · 롯데 진압현장 촬영필름 있다 - YTN 기자, “공포의 도가니”
- 경찰, 롯데호텔 폭력진압 일부 시인 - 인권운동사랑방 경찰청장 등 고발
- 2면 ·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- 민노총·전농·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

제1670호(2000. 8. 4)

/ 53

- 1면 · 미결 양심수·수배자도 풀자 - 또 다시 우려되는 ‘생색용 사면’
- “집회 참가할 교통비조차 없다” - 터전 잃고 떠도는 노동자들
- 2면 · (주) 새한, 유령노조·용역강패폭력 시비 - 농성 조합원 “전기봉, 가스총 맞았다” 주장
- <만화사랑방> 이땅을 지키는 미국인은 누구인가?

제1671호(2000. 8. 5)

/ 55

- 1면 · 경찰, 집회 ‘허가제’로 착각하고 있다 - 민주노총, 전농은 집회 생각도 말라
- <논평> 정치범 사면 최소한, 정치꾼 사면 최대한
- 2면 · <자료>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아동 -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

제1672호(2000. 8. 8)

/ 57

- 1면 · ‘국보폐지 국민연대’ 대규모 사면 요구 - 양심수 석방/정치수배 해제/귀국제한 철폐
- 집회 신고시 각서 내지 말자 - 충북 경찰청, “법적 근거 없다” 시인
- 용산경찰서, 학생 체포작전 말뚝 - 같은 버스 탄 학생들 무조건 끌어내
- 2면 · <인권시평> 길 떠나는 할아버지들 (이제훈 한겨레 기자)
- <주간인권흐름> 2000년 8월 1일 - 7일

제1673호(2000. 8. 9)

/ 59

- 1면 ·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- 국가인권기구, 국가보안법, 탈북 난민 등 관심
- “장애인 교육에 불씨가 되자” - 일곱돌 맞은 ‘노들 장애인 야학’
- 2면 · “명동성당을 비우자” - 정치 수배자 사면 제외는 밀 빠진 독에 물 붓기
- <판결문 요약> 부산지법 민사부 - 신선대,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

제1674호(2000. 8. 10)

/ 61

- 1면 · 롯데 성희롱 집단 손해소송 - 노조원 270명, 회사·경영진·상습 성희롱자 대상
- 학원강사들의 권리 찾기
- 2면 · 지문조회 ‘검토’는 해봤다? - 베일 속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
- <인터뷰> 422차 수요시위 맞은 정대협 - “일본에 전범국 각인을 찍겠다”

제1675호(2000. 8. 11)

/ 63

- 1면 · '인권대통령' 의심스럽다 - 노동자 폭력진압, 국제사회 비난 빚발
· <만화사랑방> 특별사면 나왔습다
- 2면 · 인권현안 '교착상태' 풀릴까? -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
· 롯데노조 정주억 위원장 첫공판
· 민가협 341차 목요집회 - 보랏빛 수건을 벗어 던질 날은 언제?

제1676호(2000. 8. 12)

/ 65

- 1면 · 동성애금지에 당한 전 말레이 부총리
· <논평> 단병호를 돌아보라
- 2면 · <인권시평> 압력집단과 인권(조효제 성공회대 시민사회단체학과 교수)
· '유엔 선주민의 날' 기념행사 열려: "선주민, 정체성을 찾고 싶다"

제1677호(2000. 8. 17)

/ 67

- 1면 · 롯데·스위스 호텔, 협상 난항 - '고소·해고 철회' 문제가 협상 걸림돌
· 오토론 구속노동자 석방
- 2면 · 매항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- 국가측, 패소예감 지연작전?
· 국방부, <추적 60분>에 탄지: 방영취소 압력에다 손해배상 제소까지

제1678호(2000. 8. 18)

/ 69

- 1면 · 국보법 폐지법률안 마련 - 송석찬의원, 본회의 상정 목표로 서명작업 시작
·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- 시민·사회단체, '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나' 반발
· <만화사랑방> 이산 가족된 농성노동자 가족
- 2면 · "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" - 국제엠네스티, 8·15 사면 입장 발표
· "죄질이 나쁘다", 보석 기각 - '스위스' 노조 김성래·윤재성 부위원장

제1679호(2000. 8. 19)

/ 71

- 1면 · '매항리 종합대책'은 미봉책 - 토지·어장 문제 외면, 주민과 협의 안해
· <논평> 의사 폐업 사태에 근본 처방을!
- 2면 · 구치감에서 피의자 처우 개선돼야 - 검찰조사 도중 발작 일으킨 피의자 사망
· 호텔롯데 노조위원장 반대신문
· 미 대선에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

제1680호(2000. 8. 22)

/ 73

- 1면 · 투서에 풍비박산 난 유가족 이야기 - 5·18 보상심사,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①
· 비정규직·성희롱 문제 여론화 - 호텔롯데 노사교섭 타결, 해고자 5명
- 2면 · "피고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미군" - '매항리' 첫 공판 피고인들 모두진술
· 피의자 80년대식 불법연행 - 국가정보원, "가족면회도 안 돼!"

· <인권시평> 미결수와 수의 - (강금실 변호사)

제1681호(2000. 8. 23)

/ 75

- 1면 · 롯데 폭력경찰 징계 호지부지 - 경찰청, 신원공개 요구도 거부
· 문정현 신부, 뒤늦게 피소
· <새로 나온 자료집> 『법을 알면 권리가 보인다』 -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 펴냄
- 2면 · 5·18 보상심사,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② 정신질환자 뒤바뀌다
· 주간인권흐름(2000년 8월 8일 - 8월 21일)

제1682호(2000. 8. 24)

/ 77

- 1면 · 억울한 사람 있어서는 안 돼 - 5·18 보상심사,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③
- 2면 · 보험설계사도 노동자다 - 근기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100만여 명
· 국정원, 연이어 민혁당 잡아간다
· <인터뷰> 5·18 청년동지회 이세영 사무국장 - 압내장 발굴, 국회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

제1683호(2000. 8. 25)

/ 79

- 1면 · 인권위원회 위상 싸고 격돌 예고 - NGO, 대규모 토론회 - 법무부, 기습 입법예고
· <만화사랑방> 병 키우는 교도소 의료체계
- 2면 · '경찰 비난하면 민·형사상 책임 묻겠다' -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
· <해설> '인권법'(안), 무엇이 문제인가?

제1684호(2000. 8. 26)

/ 81

- 1면 · 노점상 단속 비상! - "아셈 앞둔 거리 청소" 의혹
· <논평> 인권위원회, 검찰은 손을 떼어라
- 2면 · 국회의원 143명 '국보법 개폐' 입장 - 경실련 통일협회, 16대 국회의원 설문조사
· 매항리 공대위 구속자 보석석방
· 동성애자 최초 공개 행진 - 같은 사람임을 보이고 싶다

제1685호(2000. 8. 29)

/ 83

- 1면 · 네티즌 의사표현 '테러'로 매도 - 오락가락 정통부, 진위 의심
· <인터뷰> "사이버 연좌시위라 불러달라" -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
- 2면 · <인권시평> 패도 단상 (김규항 아웃사이더 주간)
· <주간인권흐름> 2000년 8월 22일 ~ 28일

제1686호(2000. 8. 30)

/ 85

- 1면 · 온라인 운동에 공권력 빨간불 - 경찰청, 진보네트워크 압수·수색
·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난항 - 유가협 회원, 청와대 앞 시위
- 2면 · 왜 지금 '민혁당' 인가? - 잇따른 연행,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
· <새로 나온 책> 『대한변협 '99 인권보고서(제14집)』

제1687호(2000. 8. 31) / 87

- 1면 · 노동위 심사관 노동자에 폭언 - “내가 사장이어도 당신들을 가르겠어!”
- ‘통신질서확립법’ 수정안도 마찬가지로
- “그대 뒷모습 영원히”, 사회보험 노조 고 최진욱 씨 영결식
- 2·3면 · 이달의 인권하루소식 (2000년 8월)

제1688호(2000. 9. 1) / 91

- 1면 ·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- 국보법 폐지,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
- <만화사랑방> 진보넷 압수수색
- 2면 · “우리 마을 그냥 두소!” - 울산 핵발전소 건립 반대 상경 농성
- ‘관용과 다양성: 21세기를 위한 비전’(메리 로빈슨, 벨슨 만델라)

제1689호(2000. 9. 2) / 93

- 1면 · 국정원 억지수사, 청소년까지 유린 - 민혁당 관련, 고 3생 참고인 소환
- <논평> 장기수를 북으로 보내며
- 2면 · <기고> 무엇을 위한 이주노동인가? - 제이 마크(Jay Mark) -

제1690호(2000. 9. 5) / 95

- 1면 ·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- 유엔 사회권 위원회, “한국의 모델, 지속가능인가?”
- 국정원 여고생 소환 불발
- 2면 · <인권시평> 학교와 종교의 자유 - 박복선 우리교육 편집장
- <주간인권흐름> 2000년 8월 29일 - 9월 4일

제1691호(2000. 9. 6) / 97

- 1면 ·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- 시민공청회 열려
- 경의선 복원 관련, 지뢰피해 종합대책 촉구
- 2면 · <지상중계>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 토론회

제1692호(2000. 9. 7) / 99

- 1면 · 인권하루소식 창간 7주년 - “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 없다” 재다짐
- 인권하루소식을 위한 쓴소리 모음
- 2·3면 · 법무부통제 막아내겠다 - 250여 인권활동가 ‘인권위 독립성 촉구’ 결의문 채택
- “백만명이 넘는 민간인 학살돼” -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 발족
- 이랜드 불법·부당행위 진상조사 결과 - 걸은 반듯, 속은 굽았다

제1693호(2000. 9. 8) / 102

- 1면 · 인권의 사각지대, 여성 이주노동자 - “아이 지울래 위약금 몰래?”
- <만화사랑방> 정치 수배자의 추석

- 2면 · ‘왕따’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산재 인정
- <현장> 매항리 주민대책위를 찾아
- 민주노총·참여연대 등, “속빈 강정 사회보장제도” 비판

제1694호(2000. 9. 9) / 104

- 1면 · “장애인 실업대책 세우라”, 장애인고용촉진대회장에 기습시위
- <논평> ‘선생님 사랑해요’ 그 이면의 이야기
- 2면 · <기고> 부당착취와 취업방해에 맞선 두명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
- 박정미(파견철폐 공동대책위)
- <해의소식> ‘민중정상회의’에 귀 기울여라

제1695호(2000. 9. 15) / 106

- 1면 · KBS 대량해고 방침 파문 - 노조, “총파업 대응” 반발
- 골프장 어용자치회 등장 - ‘근로자 인정’ 여부 논란
- 2면 · <산재추방 운동가의 죽음을 기리며> 되돌아본 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

제1696호(2000. 9. 16) / 108

- 1면 · 여당, 인권법 의원입법 시사 - 이해찬 의장, “당내 기구 구성해 여론수렴”
- 중앙일보 계열사 위장폐업 - 노동계, “노조 말살 책동” 반발
- <만화사랑방>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유린
- 2면 · “청소년보호법, 또 하나의 검열장치” -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토론회 열려
- <해의소식> 구타·살해 위협 속의 소년병들 - 내전 겪고 있는 시에라리온

제1697호(2000. 9. 19) / 110

- 1면 · 경찰청, 전투경찰 ‘무늬’만 바꾼다 - 위헌 소지 불구 ‘제도 개선’엔 탄청
-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(95년) 반대의견
- 인권실천시민연대, 경찰폭력 피해사례 접수
- 2면 · <하종강의 인권이야기> 장애인에게 충고하지 말지어다
- 주간인권흐름(2000년 9월 15일 - 9월 17일)

제1698호(2000. 9. 20) / 112

- 1면 ·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- 정통부·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
- “백악관으로 항의메일을” - 매항리 관련 온라인 시위, 방미시위단 파견
- 2면 · “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” - 디지털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

제1699호(2000. 9. 21) / 114

- 1면 ·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, 저임금·장시간노동·산업재해 악순환
- 2면 · <인터뷰> 사회보험노조 대변인 최재기, “경찰진압에 침묵한 시민단체 이해안돼”
- 한충련, ‘영원한 국보법 제물’ - 정상회담 이후에만 수십명 연행

- 41개 사회단체 성명, “통신질서확립법 폐기” 촉구
- 3면 · <자료>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

제1700호(2000. 9. 22) / 117

- 1면 · 생존권보다 국제회의가 중요? - 경찰,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원 강제해산
- ‘소파 항의방문단’ 미국행, 워싱턴 시위 및 상·하원 의원 면담 예정
- <만화사랑방> 무늬만 바꾸는 전투경찰
- 2면 · ‘마마’ 노동자를 아십니까? 체불임금 해결·고용승계 촉구 두달째 농성
- 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 관련자, 보안관찰처분 면제 통보

제1701호(2000. 9. 23) / 119

- 1면 · 1평 남짓한 쪽방에 최창살까지 - 군산 화재사건, 매춘여성 비참한 죽음
- <논평>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
- 2면 · 정부, 매향리 항공사고 위험 쉬쉬 - 미 조사단, “가능한 빨리 이전” 권고
- 매향리 문제, 민·형사소송 속개
- <해외소식> 시애틀에서 프라하로

제1702호(2000. 9. 26) / 121

- 1면 · 서울대생 주민등록증 반납운동 - 지문날인 폐지 촉구
- 들끓는 함성 “인터넷 검열반대” - 네티즌, 온·오프라인 오가며 시위
- “경찰청장이 근기법 위반” - 면허시험장 노조, 체불임금 고소
- 2면 · <정재숙의 인권이야기> 도보권도 인권이다
- 주간인권흐름(2000년 9월 17일 - 9월 23일)

제1703호(2000. 9. 27) / 123

- 1면 · 청소년들의 이유있는 저항 - 두발자유 권리 요구 들끓어
- 2면 · <인터뷰> 전국중고등학생연합(준) 대표, “인권은 당사자가 찾아야죠”
- 대우조선 하청노동자, 이번엔 폭행수난 - “수당지급·블랙리스트 폐기” 촉구

제1704호(2000. 9. 28) / 125

- 1면 · 정통부 ‘꼼수’로 국민 기만 - 인터넷 규제·검열 오히려 강화
- 서준식 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- 법원, “공산주의 사상 갖고 있다 추단돼”
- 2면 · 문화연대, 청소년보호법 폐지운동 전개 - “청소년 인권·문화표현의 자유 침해”
- 소파개정 미국방문단 활동 본격화 - 미 상원의원 및 주미대사 면담
-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, 어이없는 행정에 20여 시간 구금

제1705호(2000. 9. 29) / 127

- 1면 · <성명>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(인권운동사랑방)

- 2면 · 커밍아웃 홍석천 씨, 방송에서 ‘아웃’ - 각계, 홍씨 지지선언 준비
- 국정원 공작 의혹 또 제기 - 청주지역 노동자 “간첩조작” 폭로
- <만화사랑방> ‘아웃팅’ 당한 홍석천씨
- 3면 · <인터뷰> 홍석천 씨, “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”
- 홍석천 씨 커밍아웃과 관련된 인권단체 의견

제1706호(2000. 9. 30) / 130

- 1면 · 법무부 변명 ‘허튼소리’로 판명 - 법원, “보안관찰 자료 공개하라” 판결
- <논평> 동성애자에 대한 ‘상식’의 폭력을 멈춰라
- 2·3면 · 이달의 인권하루소식(2000년 9월)

제1707호(2000. 10. 3) / 133

- 1면 · 월곡동 철거용역, 사람 있는데 포크레인 밀어붙여 - 행인도 검문
- “우리가 주체로! 권리를 찾아서!” - 중고등생들, ‘학교민주화선언’ 발표
- 2면 · <이재승의 인권이야기> 확산법
-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, 행동 돌입
- “무노조 아성을 깨뜨리자” - 삼성해고자 1700명 원직복직 요구

제1708호(2000. 10. 5) / 135

- 1면 · 경찰, 인권단체 홈페이지 점령 - ‘경찰폭력근절 캠페인’에 비난 글 폭주
- 유명단체 동원 집회봉쇄 의혹 - 경찰청 앞 집회 “이미 찼어요”
- “국가보안법 사건 명예회복하자” - 사건 관련자, 시·도별 공동접수 예정
- 2면 · 각계 인사들, 커밍아웃 지지모임 발족
- <동성애 일문일답> 왼손잡이가 변태가 아니듯
-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- 민주노총,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

제1709호(2000. 10. 6) / 137

- 1면 · 소파개정투쟁 방미대표단 귀국, “해외단체와 공동투쟁 결의”
- 비정규직 권리보장 백만인서명운동 돌입
- <만화사랑방> 경찰의 집회방해 및 사이버폭력
- 2면 · <현장> 철거촌 두 풍경 - 구리시 최촌마을 및 인창마을
- <연재> 인권소식지와의 만남① 다산인권

제1710호(2000. 10. 7) / 139

- 1면 · “박정희 대신 민주화운동 계승을” -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, 토론회 열려
- <논평> 두발 자유화의 의미를 생각한다
- 2면 · 민변 대전지부 “대학생 연행도중 성추행” 주장
- 서울대생 32명 주민증 반납, 행자부에 “지문정보 폐기” 요청
- <연재> 인권소식지와의 만남② 주간 울산인권소식

제1711호(2000. 10. 10)

/ 141

- 1면 · 고용허가제, 이대로 안 된다 - 말로만 근로자, '인권보장' 미비
- "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하나" - 민주당 주최 토론회, 국보법 존치·폐지 설전
- 2면 · <정주연의 인권이야기> 오늘의 말말말...살려야 할 말
- <주간인권호름> 2000년 9월 24일 - 10월 8일

제1712호(2000. 10. 11)

/ 143

- 1면 · "고발한다! 인권의 이름으로" - 제5회 인권영화제 10월 27일 개막
- 2면 · <기고> 매춘여성의 죽음과 검찰의 수사(김영옥, 전북평화와인권연대)
- <연재> 인권소식지와 만남③ 제주인권지기

제1713호(2000. 10. 12)

/ 145

- 1면 · 퇴직 앞두고 열심히 뛰었지만..., 경북 상주 탄광노조위원장 분신자살
- 2면 · <해외소식> 유린당한 프라하의 평화시위 - 체코 당국 과잉진압, 850명 연행
- <연재> 인권소식지와 만남④ 평화와 인권

제1714호(2000. 10. 13)

/ 147

- 1면 · <인터뷰> 박하순(WTO반대국민행동 집행위원) "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"
- <인터뷰> 김유경(인권실천시민연대 활동가) "인권단체, 아셈민간포럼 탈퇴"
- 2면 · 삼성SDI, 또다시 노동자 납치 의혹 - 지난해에도 노조결성 방해 전력
- <만화사랑방> 두발자유화와 청소년 인권

제1715호(2000. 10. 14)

/ 149

- 1면 · 노벨상은 받았지만... 현 정권 2년차 국보법 구속 286명
- <논평> 아셈을 반대하는 이유
- 2면 · 베트남전 심포지움 좌절 - 서울시의회, 마찰 핑계 장소 불허
- "인권과제 실현에 노력 기울이길" - 인권기구 공대위, 노벨상 관련 논평
- <해외소식> 중동사태 관한 국제여론 "국제인권기준 위반한 민간인 발포"
- 3면 · <성명>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부쳐(인권운동사랑방)

제1716호(2000. 10. 17)

/ 152

- 1면 · "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" - 전교조 교사들,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
- 온라인 시위, '사이버 테러' 혐의 벗어 - 경찰청 "정통부 고소내용 증거 없다"
- 2면 · <하종강의 인권이야기> 내 이름은 비정규직
- <주간인권호름> 2000년 10월 9일 - 10월 15일
- 별지 · <제5회 인권영화제 일정표>

제1717호(2000. 10. 18)

/ 155

- 1면 · 먼저간 아들을 대신해 싸운다 - 군의문사 유가족들, 국방부 앞 삭발농성
- 아셈관련 민간단체 주요행사
- 2면 ·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- 이주노동자 권리실현 토론회
- <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> ① WTO, IMF, 아셈
- 별지 · <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> ① '미국의 얼굴'

제1718호(2000. 10. 19)

/ 158

- 1면 · 경찰, 불법체류자에 가혹행위 - 통역인도 없이 짓밟고 상처치료도 느장
- 보험모집인 노조 설립필증 보류 - 구청, "보험모집인 근로자성 부정"
- 2면 · "국가를 역감시할 법을 만들자" -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
- <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>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
- 별지 · <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> ② '세계은행 부수기' '평화의 췌방꾼-미군'

제1719호(2000. 10. 20)

/ 161

- 1면 ·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- 회사 앞 '집회금지 가처분신청' 잇따라
- <만화사랑방> 왜 군의문사인가?
- 2면 · 인권단체들, 아셈 시위현장 인권감시 맡는다 - 불법검문 등 적극 대응키로
- 민주노총, 강남 집회 강행 예정 - 집회금지에 이의신청 제기
- 송실대에서 아셈반대 전야제, 노동자·학생 5천여명 참여
- 해외 인권단체 활동가들, '국보법 폐지' 연대행동
- 온라인 통제 3법, 당정협의 통과 - 40여개 사회단체, 반대의사 거듭 표명
- 별지 · <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> ③ 계마라...동성애...어린이의 권리

제1720호(2000. 10. 21)

/ 164

- 1면 · 아셈반대 시위에 곤봉세례 - 서울행동의날 선언문 채택돼
- <논평>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절규 외면말라
- 2면 · <인터뷰> 아셈 반대행동 참여한 해외인사들 "신자유주의는 시장만의 발전"
- 검찰 구치감에서도 알몸수색 - 차수련 보건의료노조위원장
- 보안관찰 몇몇하면 밝혀라 - 법원, 또다시 '정보공개하라' 판결
- 별지 · <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> ④ 억압받는 사람들 ... 세계민중

제1721호(2000. 10. 24)

/ 167

- 1면 · KBS에 겨울공화국 오는가 - 노조죽이기에 '박 사장 퇴진'으로 맞서
- 구호만 요란했던 경찰 '인권실천대회' - 구체적 인권개선대책은 없어
- 2면 · <정재숙의 인권이야기> 영화 한 편을 볼 권리
- <주간인권호름> 2000년 10월 16일 - 10월 22일
- 별지 · <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>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(한국작-1)

제1722호(2000. 10. 25)

/ 170

- 1면 · '절망의 공장'으로 변한 현대중공업 ① - 일상화된 감시통제 아래 기본권 실종
- 2면 · <인터뷰> 이종희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"이제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저지"
- 별지 · <제5회 인권영화제 부대행사> 특별한 이야기마당

제1723호(2000. 10. 26) / 173

- 1면 · 대공수사반, 인터넷방송국 침탈 - '청춘' 대표 등 3명 국보법 혐의 연행
·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-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
- 2면 · '절망의 공장'으로 변한 현대중공업② - 수십년 걸쳐 찾은 권리 한 순간에 뺏겨
· <인권간행물> 『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』 『21세기의 인권 1, 2』
· 수원인권영화제 10월 27-29일 열려
- 별지 · <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> ⑥ 끝 -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(한국작-2)

제1724호(2000. 10. 27) / 176

- 1면 · 알몸수색 발뺨, 거짓으로 드러나 - 경찰 "사실일 경우 목 내놓겠다" 공언
- 2면 · <인터뷰> 사이트 케도(레바논, 인권영화제 초청감독)
"이라크 경제봉쇄, 민중들 사경으로"
· 인터넷방송단체들, '청춘' 구속 규탄
· 노동시간 감축 핑계, 근기법 개악 우려 - 민주노총, 노사정위 합의안 비판

제1725호(2000. 10. 28) / 178

- 1면 · 이주노동자 부부, 농장에서 강제노역 - 농장주, 대체인력 구하라며 임금 뺏어
· <논평> 임박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하여
- 2면 · <기고> 25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사회적 연대틀거리 형성이 시급하다(이윤주,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집행국장)
· <인권영화제 상영일정표>
- 별지 · <제5회 인권영화제 개막일 표정> 1천5백 가슴에 불빛된 '체 게바라'
·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

제1726호(2000. 10. 31) / 181

- 1면 · 롯데호텔 경찰투입, 노동부가 요청 - 김문수 의원 "노동부·검찰 사전공모"
· 여야의원, '인터넷 검열반대' -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온라인시위
- 2면 · <이재승의 인권이야기>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
· <주간인권호름> 2000년 10월 23일 - 10월 28일
- 별지 · <제5회 인권영화제 둘째·셋째날 표정> '대지의 소금'은 이화여대에 있었다

제1727호(2000. 11. 1) / 185

- 1면 · 중도실명장애인들, 안마사협회 앞 농성 - 사람답게 일하며 배우고 싶다
· 인권단체들, '새만금사업 반대' 성명 - "무한개발에 민중생존 무너져"
- 2·3면 · 이달의 인권하루소식(2000년 10월)

제1728호(2000. 11. 2) / 188

- 1면 · <인터뷰> 태준식(올해의 인권영화상 수상, 「인간의 시간」 감독)
"무자비하게 폐기처분된 사람들"
· <취재수첩> 일선 경찰의 '인권' 콧방귀
- 2면 · 민주노총, 알몸수색 규탄집회 열어 - 책임자처벌·장관 면담 요구
· <인터뷰> 김정아(인권영화제 기획) "소외된 이웃에게 찾아가는 영화제로"

제1729호(2000. 11. 3) / 190

- 1면 · "인권위 국가기구화 박차 가하자" - 인권단체들, 정대철 의원 언급 환영
· <속보> 중도실명장애인들 농성 타결
· <만화사랑방>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
- 2면 · 신중 노동착취 합법화 -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 비판
· "군 사망사건 수사 부실" - 한해 1백명 이상, 자살로 보고돼

제1730호(2000. 11. 4) / 192

- 1면 · "여긴 사람사는 곳이 아니에요" - 버려진 주거공간 영등포 '쪽방' 지역
· <논평> 인간중심의 개발을 위하여
- 2면 · 개발논리에 떠밀린 지역주민의 삶 - 새만금 사업, 본전포기가 현명한 처사
· 매향리 투쟁 계속 '기자회견'
·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발족 - 고용허가제 곳곳 독소조항

제1731호(2000. 11. 7) / 194

- 1면 · "왜 노동자만 죽어야 하나요" - 퇴출 건설노동자, 29일 총파업 선언
· 인구조사에 '학력·직업' 파악 -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
- 2면 · <정주연의 인권이야기> 운동가의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
· <주간인권호름> 2000년 10월 29일 - 11월 4일

제1732호(2000. 11. 8) / 196

- 1면 · '박정희 철거'에 집단 히스테리 - 정치권, '홍상철거 사건' 본질 외면
· 일본군 성노예 전범 범정에 세운다 - 동경에서 대규모 2000년 국제법정 예정
- 2면 · "삼청교육 억울함 풀어달라" - 삼청교육 피해자, 의원면담도 제지당해
· 동성애자 국회출석 결국 무산 - 홍석천씨 증인채택 안돼
· <1면에서> 일본군 성노예 전범 범정

제1733호(2000. 11. 9) / 198

- 1면 · 민주당 고진부 의원 공개 해명 "동성애자 국회출석 당언"
· 북한소설 출판인 국정원 연행 - <살림터> 송영현 대표
- 2면 ·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공동성명 "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"
· 박정희 홍상철거 지지성명 이어져 -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

- 삼청교육 피해 회복하라 - 피해자단체 성명발표
- <인권간행물> 『인권은 교문앞에서 멈춘다』 (배경내 지음)

제1734호(2000. 11. 10) / 200

- 1면 · 국정원은 '인권배제' 구역 - 가족 면회도 '수사진행' 이유 거부
 · 이주노동자 가혹수사 사실로 드러나 - 수원지역 인권단체들 진상발표
 · <만화사랑방> 박정희 흉상철거
- 2면 · <현장>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'쪽방' 지대

제1735호(2000. 11. 11) / 202

- 1면 · <논평> 인권은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 - 전태일 열사 30주기에 부쳐
- 2면 ·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췌기 - 법원, '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' 선고
 · <판결문 요지>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(2000가합35295)
 · 식당노동자 125일만의 승리 - 진주경상대 정규직 고용승계
- 3면 · 대우자동차 부도, 노동자와 무관 - 정부·채권단, 의도적 책임전가
 · 가혹수사 당한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- 진상조사단, 손배소송 방침
 · <기고> 내가 지명수배자로 몰린 사연(이상희, 변호사)

제1736호(2000. 11. 14) / 205

- 1면 ·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-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, 정보법에 옮겨
 · <반박문> 홍석천씨 국감증언 불허사태의 진상(동성애자인권연대)
 · 전교조등, 알몸수색 경찰 고소
- 2면 · <하종강의 인권이야기> 대우채권단과 언론의 어리석은 선택
 · <주간인권흐름> 2000년 11월 5일 - 11월 12일

제1737호(2000. 11. 15) / 207

- 1면 · 온라인게임에도 레드컴플렉스 - 리니지, '북조선·김일성' 계정 삭제키로
 ·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서공개 - 한미 공동조사 사실도 드러나
- 2면 · <인터뷰> 한홍구 베트남진실위 집행위원 "진실규명만이 참전군인 명예회복"
 · 새만금 백지화 촉구, 범종교인 선언
 · 전주인권영화제 오늘 개막
 · <자료요약> 비밀해제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문서

제1738호(2000. 11. 16) / 209

- 1면 · 인권피해 치유할 곳 만든다 - 정치폭력피해자 전문치료재활센터 추진
 · 국보법 적용 줄줄이 구속 - 경찰, 기무사 한건씩
 · "김용갑은 독사의 족속" - 천주교연대, 색깔론 규탄
- 2면 · <인터뷰> 김록호 정치폭력피해자센터 추진위원 "피해가족 치유도 필수적"
 · <기고> 심화되는 교육불평등(김영삼,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교육과정연구실장)

제1739호(2000. 11. 17) / 211

- 1면 ·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-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맞서 공공성 강화로
 · <만화사랑방> 구조조정에 희생되는 노동자들
- 2면 · 통제·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- 청소년보호법 공대위 발족
 · 누구를 위해 갯벌 막는가? - 새만금 주민·사회단체들, 중요공원서 집회

제1740호(2000. 11. 18) / 213

- 1면 · 생존권투쟁에 공안대책협의회로 응수 - 노동자대회 참가자 체포
 · <논평> 청소년보호법이 '독점'하려는 것
- 2면 · 매항리주민들 KNCC인권상 수상 - 법원에선 주민들에게 유죄선고
 ·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- 법원, "도주우려 없는 데 무리한 조치"
 · <해외소식> 휴먼라이츠워치 선정, 2000 인권지킴이

제1741호(2000. 11. 21) / 215

- 1면 · 작업장통제 방식 갈수록 고도화 - 대전 한라공조, 신형자동센서 도입
- 2면 · <정재숙의 인권이야기> 수첩을 지우며
 · <주간인권흐름> 2000년 11월 13일 - 11월 19일

제1742호(2000. 11. 22) / 217

- 1면 · 노동3권 무색한 운전학원 강사 - 노원자동차학원, 노조탄압 일관
 · 삼성SDI 악랄한 무노조정책 - '납치' 의혹 노동자 돌아와
 · <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> ① 인권위법인가? 인권법인가?
- 2면 · <인터뷰> 삼성SDI노동자 김갑수씨 - 삼성, 노조 싹만 보이면 짓밟아
 · <참관기> 고문방지조약 이행을 위한 세미나

제1743호(2000. 11. 23) / 219

- 1면 · 노동자는 구속, 경찰은 기소유예 - 호텔롯데 '폭력', 전원 불기소
- 2면 · 통합정보시스템, '침단' 노동강도 강화 수단 - (주)만도 노사대립
 · <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> ② 민간기구냐? 국가기구냐?

제1744호(2000. 11. 24) / 221

- 1면 · 과거청산 의지 시험대 올라 - 의문사 사건, 진상규명위원회에 첫 접수
 · "보안관찰 끝나도 벌금은 내라" - 김삼석 씨 항소심서도 패소
 · <만화사랑방> 김삼석씨 보안관찰 판결
- 2면 ·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- 인권영화제 사건 등 보안관찰법 족쇄
 ·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

제1745호(2000. 11. 25) / 223

- 1면 · 인권회복 향한 구체적 실천을 - 인권피해치료센터 건립추진위 기자회견
- 양대 노총 위원장 공동 발표, “구조조정 반대 강력투쟁”
- <논평> 예바다에 민주적 이사회를
- 2면 · 부릴 때는 노동자, 법적보호는 배제 - 골프경기보조원 등 근로실태 드러나
- <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> ③ 소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인가?
- <해외소식> 또 하나의 동티모르, 아체

제1746호(2000. 11. 28) / 225

- 1면 ·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! -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
- 예바다 사태 4주년, 구재단 입김 여전·정상화 난망
- 2면 · <이재승의 인권이야기> 권리 위에 잠든 자
- <주간인권흐름> 2000년 11월 20일 - 11월 26일

제1747호(2000. 11. 29) / 227

- 1면 · 민주당 인권특위, 인권법안 확정 - ‘인권위 독립성’ 수용, ‘실효성’ 후퇴
- 의원 21명, 국보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- 사회단체들도 압력 가세
- 2면 · 굶어도 아파도 지원은 없어 - 쪽방 거주민 실태 드러나
- 주민행세 버젓이 회의 염탐 - 진안경찰서 사찰행위 발각
- <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> ④ 인권위원 면책특권

제1748호(2000. 11. 30) / 229

- 1면 · “국보법 폐지” 한나라당 접거 - 청년학생 6명, 냉전사고 폐기 촉구
- 홈페이지 운영원칙에 관한 토론 - 자유게시판, 삭제로 해결 안된다
- <만평> 인권위원회 관 ‘심청과 뽕덕어멈’
- 2면 · 홈페이지 운영도 ‘표현의 자유’ 존중해야 - 게시판 운영, 네티즌 관점에서
- 경찰포위망 속 기자회견, “소파개정 열망 외면말라”
- 제1회 울산인권영화제, 11월 30일부터 울산대에서
- 별지 · <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지>

제1749호(2000. 12. 1) / 233

- 1면 · “인권법 수준미달, 수용불가” - 인권기구 공대위,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
- 2·3면 · 이달의 인권하루소식(2000년 11월)

제1750호(2000. 12. 2) / 236

- 1면 · “국보법 52년, 이제 무덤으로” - 단식농성·국회앞 시위 등 이어져
- <논평> ‘인권대통령’의 두 얼굴
- 2면 · 단식농성 들어간 중국동포들, “절망끝에 벌이는 필사의 투쟁”
- <해외소식> 미국의 가면을 고발하는 사형수 ‘무미아’

제1751호(2000. 12. 5) / 238

- 1면 ·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- 검·경, ‘범죄자 유전자 채취’ 합법화 추진
- 2면 · <정주연의 인권이야기> 그 아이의 눈에 생기를 담는 길
- <주간인권흐름> (2000년 11월 27일 - 12월 3일)

제1752호(2000. 12. 6) / 240

- 1면 · 통신법 독소조항, 무사통과 전망 -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
- 미국 눈치 살피기 바쁜 한국정부 - 소파협상 관련, 시위대 접근 방해
- 민주당 서영훈 대표, “국가보안법 연내 개정”
- 2면 · “유전자채취 합법화, 인권침해 불 보듯” - 17개 인권단체, 유전자계획 중단 촉구
- “구속, 알몸수색 근거 안돼” - 알몸수색 인권침해 논란 토론

제1753호(2000. 12. 7) / 242

- 1면 · 민주노총 등, “경제계 시국선언은 자본가 집단이기주의” 비판
- 학생 ‘관리’ 도구, 교칙을 해부한다 - ‘인권을 찾자, 교칙을 찾자’ 캠페인
- 2면 · 통신질서확립법, 법안심사소위 통과
- 미군의 포사격에 삶의 터전 잃은 농민 - 파주 스토리사격장 농민 상경시위
- <자료> ‘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선언’, ‘경제5단체장의 집단이기 시국선언’

제1754호(2000. 12. 8) / 244

- 1면 ·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 노조 - 파업 176일 경과, 정규·비정규직 한몸투쟁
- <만화사랑방> 경제5단체, ‘시국선언’ 심보
- 2면 · <기고> 동티모르, 미래를 위한 끝나지 않은 투쟁(최준석 민변 활동가)

제1755호(2000. 12. 9) / 246

- 1면 · 여야의원 72명, 인권위법 발의키로 - “전시기구 안돼” 인권단체 의견 반영
- 이랜드 노조원 중계동 전산실 점거투쟁 - 전원 경찰에 연행
- 19개 인권단체 ‘인권개선 실천’ 촉구 - “인권관련법 연내 처리, 민중생존권 보장!”
- 2~4면 · <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 뉴스>

제1756호(2000. 12. 12) / 250

- 1면 · 벤처기업 병역특례노동자, “용도폐기” 일방적 퇴출
- ‘시위봉쇄’ 관행 뿌리뽑자 -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명, 손해소 청구
- 2면 · <하종강의 인권이야기> 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해야 한다
- <주간인권흐름> (2000년 12월 4일 - 12월 10일)

제1757호(2000. 12. 13) / 252

- 1면 · ‘OK! 꿈수’, 불법과견근로 은폐 - SK(주) 도급계약 위장, 노조원 해고

- 2면 · <인터뷰> 윤기원(민변 사무총장), “이대로 가면 인권법·국보법 실종”
- “가족들 피자회사 근무 제한”, 무리한 ‘경업금지’ 규정…노동자 반발

제1758호(2000. 12. 14) / 254

- 1면 · 국보법 폐지·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- 민주화운동 원로 호소문발표
- 여야의원 95명 인권위법 발의, 변호사·교수 국보법 철폐 시위
- 2면 · 한통 계약직 노조, 구조조정 반대 파업
- 서신교환, 교도소장 맘대로? - 재소자, 서신교환 불허에 손해소송 제기

제1759호(2000. 12. 15) / 256

- 1면 · <현장> 2000 한국의 노숙자 - 그들에 대한 편견의 시선부터 거두자
- <만화사랑방> 노벨평화상과 국가보안법
- 2면 · “서준식 무죄!” 국내외 성명 이어져 - 다음주 항소심 선고공판, 재판부 판단 주목
-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견, “국보법 폐지·인권위법 제정” 대통령에 촉구

제1760호(2000. 12. 16) / 258

- 1면 · 인권의료복지센터 발기인대회 열려 - 사건 끝나도 인권피해 ‘진행중’
- <논평>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은 범죄행위
- 2면 · <기고> 땀질 불과한 노숙자대책(박효원,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)

제1761호(2000. 12. 19) / 260

- 1면 · 인권단체 활동가들 단식돌입 - 국보법·인권위법 등 인권현안 처리 촉구
- 서준식 대표 선고공판 연기
- 명동성당의 ‘구조조정 반대’ 함성 - 한국통신 정규직 노조 파업농성 돌입
- 2면 · <정재숙의 인권이야기> 세밀 잡설
- <주간인권흐름> 2000년 12월 11일 - 12월 17일

제1762호(2000. 12. 20) / 262

- 1면 · <기획>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① ‘땃’에 걸린 노동자.
- 2면 · 국보법에 가로막힌 남매의 마지막 인사 - 수배자 장진숙씨, 동생 임종 못 지켜
- 인권활동가들 단식 해제, “구조조정 반대투쟁 흐릴 수 없어”

제1763호(2000. 12. 21) / 264

- 1면 · 피명 남긴 채 재소자 사망 - 의정부교도소, 위급한 재소자 방치 의혹
- 2면 · <기획>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② 삼성, 무노조 정책도 ‘분사’
- 새만금 반대 사회단체 대표들 단식 - 여야의원, 새만금 보류 건의

제1764호(2000. 12. 22) / 266

- 1면 · 의정부 재소자 사인은 ‘구타’ - 국과수 부검의 확인 (☞ 12월 27일자에 정정보도)
- 지학순정의평화상에 이부 솔라미 여사 - 인도네시아 대량학살 진상규명 기여
- <만화사랑방> 삼성의 무노조 정책과 인권유린
- 2면 · <기획>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③ 격리·감금·회유 등 총동원

제1765호(2000. 12. 23) / 268

- 1면 · 농성수배자들 갈 곳 잃어 - 명동성당측, 성탄행사 이유 수배자천막 철거
- <논평> 이제 한통 계약직 노조의 파업에 연대하자
- 2면 · <기획>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④ “무노조전략, 세습경영에서 비롯”
- 학생 인권운동, 어깨 걸고 나선다 - 전국중고등학생연합 공식 출범

제1766호(2000. 12. 27) / 270

- 1면 · 한통 계약직, 연말 총력투쟁 - 7천여 노동자 해고시한 1주일 남아
- 정치수배자들 입시거처 기거 - 명동성당 “농성불가” 방침 천명
- <정정보도> 의정부재소자 관련 보도
- 2면 · <이재숙의 인권이야기> 희망권
- <주간인권흐름> 2000년 12월 18일 - 12월 26일

제1767호(2000. 12. 28) / 272

- 1면 · 미군 사격장에 농토 빼앗기다 - 파주 스토리사격장 인근마을 없어질 판
- <인터뷰> 파주 스토리사격장 대책위원회 조봉현 씨
- “내 땅이 공여지에 포함되는지조차 몰라”
- 2면 · 비정규직 고용안정 한 목소리 - 한통 계약직·이랜드·멀티데이터 등 연대투쟁
- <해외소식> 독립 동티모르를 어떻게 건설할까?

제1768호(2000. 12. 29) / 274

- 1면 · 인권활동가 노상 단식농성 - 인권대통령에 최후통첩, 국보법 등 해결 촉구
- 삼성에 신노사문화대상이라니? - 무노조 신화, 전근대적 노동탄압
- 2·3면 · <이달의 인권하루소식> 2000년 12월
- 4면 · 그림으로 푸는 ‘2000년 인권 10대 뉴스 배우기’



인권하루소식

합본 15호 색인

찾아보기

개인정보/프라이버시 /280	어린이·청소년 /288
·〈지문날인제도〉	·〈청소년보호법〉
건강권 /280	온라인공간 표현의 자유 /289
경찰폭력 /280	·〈통신질서확립법〉
·〈부당연행 및 구금〉	이주노동자 /289
고문/가혹수사 /281	자결권과 미국 /290
과거청산(불처벌) /281	·〈매항리 미군폭격장〉
·〈민주화운동명예회복·의문사진상규명〉	·〈과주 스토리사격장〉
·〈박정희 기념사업〉	·〈한미주둔군지위협정(소파)〉
·〈베트남전 진실규명운동〉	장애인 /291
·〈삼청교육 피해〉	주거 /291
·〈인권의료복지센터 건립운동〉	집회시위의 자유 /291
·〈특집〉 5·18 보상심사,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	평화 /292
교육 /282	피구금자 인권 /292
국가보안법 /282	·〈유치장 알몸수색〉
·〈국보법 사건〉	·〈재소자〉
국가인권위원회 /283	·〈피의자〉
군의문사 /284	환경/개발 /292
노동 /284-6	·〈새만금 개발〉
·〈롯데호텔·사회보험노조 파업〉	해외소식 /293
·〈비정규직〉	기타 /293-4
·〈산업재해〉	·〈강신욱 대법관 임용 반대운동〉
·〈삼성그룹 무노조정책〉	·〈군산매매춘업소 화재사건〉
·〈이랜드 노조 투쟁〉	·〈신자유주의·아셈 반대투쟁〉
·〈철도노동자〉	·〈연재 : 인권소식지와의 만남〉
·〈특수근로관계 노동자〉	·〈인권영화제〉
농민 /287	인권하루소식 고정란 /295
도시빈민 /287	·〈논평〉
·〈노숙자〉	·〈인권시평/인권이야기〉
동성애자 /287	·〈인권간행물〉
보안관찰법 /287	·〈만화사랑방〉
·〈서준식 사건〉	·〈이달의 인권하루소식〉
양심수/정치수배자/해외망명자 /288	·〈주간인권흐름〉
사회보장 /288	
성폭력 /288	
·〈호텔롯데 성희롱〉	

개인정보/프라이버시

- 학부모·지역 운영위원 신분조회 - 사생활 침해, 운영위원 활동 위축(00. 7. 22 2면 1661호) /32
- “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”- 디지털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(00. 9. 20 2면 1698호)/113
- “국가를 역감시할 법을 만들자” -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(00. 10. 19 2면 1718호) /159
- 인구조사에 ‘학력·직업’ 파악 -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(00. 11. 7 1면 1731호) /195
- <기고>내가 지명수배자로 몰린 사연 - 이상희 변호사(00. 11. 11 3면 1735호) /204
-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- ‘범죄자 유전자 채취’ 합법화 추진(00. 12. 5 1면 1751호) /238
- 17개 인권단체 성명, “유전자채취 합법화, 인권침해 불보듯”(00. 12. 6 2면 1752호) /241

▷지문날인제도

- ‘휴대용 신원조회기’ 철회 요구 - 지문날인 거부 78+(00. 7. 11 1면 1653호) /15
- 지문조회 ‘검토’는 해봤다? - 베일 속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(00. 8. 10 2면 1674호) /62
- 서울대생 주민등록증 반납운동 - 지문날인 폐지 촉구(00. 9. 26 1면 1702호) /121
- 서울대생 32명 주민증 반납, 행사부에 “지문정보 폐기” 요청(00. 10. 7 2면 1710호) /140

건강권

- 의료개혁, 출발에 불과 -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맞서 공공성 강화로(00. 11. 17 1면 1739호) /211

경찰폭력

- 이철용씨 국가배상 받아 -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(00. 7. 7 1면 1651호) /11
- 경찰,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집단구타(00. 7. 11 1면 1653호)/15
- 경찰이 때려놓고 시위대 탓으로 날조 - 경찰청, 뒤늦게 사과문 실기로(00. 7. 26 1면 1663호) /36
- “경찰이 돈까지 빼앗았다” - 전농, 농민 대회 피해 보상 요구(00. 7. 27 1면 1664호) /38
- 재소자 징벌 해제 요구에 경찰 폭력행사(00. 8. 2 1면 1668호)/49
- 경찰청, 전투경찰 ‘무늬’만 바꾼다 - 위헌 소지 불구 ‘제도 개선’엔 판청(00. 9. 19 1면 1697호) /110
-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(95년) 반대의견(00. 9. 19 1면 1697호) /110
- 인권실천시민연대, 경찰폭력 피해사례 접수(00. 9. 19 1면 1697호) /110
- 경찰, 인권단체 홈페이지 점령 - ‘경찰폭력근절 캠페인’에 비난 글 폭주(00. 10. 5 1면 1708호)/135
- 아셈반대 시위에 곤봉세례 - 서울행동의날 선언문 채택돼(00. 10. 21 1면 1720호) /164
- <취재수첩> 일선 경찰의 ‘인권’ 콧방귀(00. 11. 2 1면 1728호) /188
- 주민행세 버젓이 회의 엮담 - 진안경찰서 사찰행위 발각(00. 11. 29 2면 1747호) /228

▷부당 연행 및 구금

- 용산경찰서, 학생 체포작전 말썽 - 같은 버스 탄 학생들 무조건 끌어내(00. 8. 8 1면 1672호) /57
-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, 어이없는 행정에 20여 시간 구금(00. 9. 28 2면 1704호) /126
- 민변 대전지부 “대학생 연행도중 성추행” 주장(00. 10. 7 2면 1710호) /140

고문/가혹수사

- 안산경찰서 고문수사 ‘사과’ - “왜곡” 발뺌하다 “잘못인정” 태도 바뀌(00. 7. 13 1면 1655호) /19
- 경찰, 불법체류자에 가혹행위 - 통역인도 없이 짓밟고 상처치료도 느장(00. 10. 19 1면 1718호)/158
- 이주노동자 가혹수사 사실로 드러나 - 수원지역 인권단체들 진상발표(00. 11. 10 1면 1734호) /200
- <참관기> 고문방지조약 이행을 위한 세미나(00. 11. 22 2면 1742호) /218

과거청산(불처벌)

- <인터뷰> 422차 수요시위 맞은 정대협- “일본에 전범국 각인을 찍겠다”(00. 8. 10 2면 1674호)/62
- “백만명 넘게 학살” -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 발족(00. 9. 7 2면 1692호) /100
- 일본군 성노예 전범 법정에 세운다 - 동경 2000년 국제법정 예정(00. 11. 8 1·2면 1732호) /196

▷민주화운동 명예회복·의문사진상규명

- 민주화운동, 폭넓게 해석해야 -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토론회(00. 7. 4 2면 1648호) /5
- 명예회복보상·의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의결(00. 7. 5 2면 1649호) /8
-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난항 - 유가협 회원, 청와대 앞 시위(00. 8. 30 1면 1686호) /85
- “국가보안법 사건 명예회복하자” - 관련자, 시·도별 공동접수 예정(00. 10. 5 1면 1708호) /135
- “박정희 대신 민주화운동 계승을”-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 토론회 열려(00. 10. 7 1면 1710호)/139
- 과거청산 의지 시험대 올라 - 의문사 사건, 진상규명위원회에 첫 접수(00. 11. 24 1면 1744호) /221

▷박정희 기념사업

- ‘박정희 철거’에 집단 히스테리 - 정치권, ‘홍상철거 사건’ 본질 외면(00. 11. 8 1면 1732호) /196
- 박정희 홍상철거 지지성명 이어져 -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(00. 11. 9 2면 1733호) /199

▷베트남전 진실규명

- 베트남전 심포지움 좌절 - 서울시의회, 마찰 핑계 장소 불허(00. 10. 14 2면 1715호) /150
-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서공개 - 한미 공동조사 사실도 드러나(00. 11. 15 1면 1737호) /207
- <인터뷰> 한홍구 베트남전 진실위 집행위원(00. 11. 15 2면 1737호) /208
- <자료요약> 비밀해제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문서(00. 11. 15 2면 1737호) /208

▷삼청교육 피해

- “삼청교육 억울함 풀어달라” - 삼청교육 피해자, 의원면담도 제지당해(00. 11. 8 2면 1732호) /197
- 삼청교육 피해 회복하라 - 피해자단체 성명발표(00. 11. 9 2면 1733호) /199

▷인권의료복지센터 건립운동

- 인권피해 치유할 곳 만든다 - 정치폭력피해자 전문치료재활센터 추진(00. 11. 16 1면 1738호) /209
- <인터뷰> 김록호, “피해가족 치유도 필수적”(00. 11. 16 2면 1738호) /210
- 인권회복 향한 구체적 실천을 - 인권피해치료센터 추진위 기자회견(00. 11. 25 1면 1745호) /223
- 인권의료복지센터 발기인대회 열려 - 사건 끝나도 인권피해 ‘진행중’(00. 12. 16 1면 1760호) /258

▷특집 : 5·18 보상심사,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

- ① 투서에 풍비박산 난 유가족 이야기(00. 8. 22 1면 1680호) /73
- ② 정신질환자 뒤바뀌다(00. 8. 23 2면 1681호) /76
- ③ 억울한 사람 있어서는 안 돼(00. 8. 24 1면 1682호) /77
- <인터뷰> 5·18 청년동지회 이세영 사무국장 - 암매장 발굴 진행해야(00. 8. 24 2면 1682호) /78

교육

- 제2회 대학생 인권캠프, 참여자들 한 목소리 “대학 내 인권교육 절실!”(00. 7. 27 1면 1664호) /38
- <기고> 심화되는 교육불평등 - 김영삼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연구실장(00. 11. 16 2면 1738호)/210

국가보안법

- 초·재선의원 ‘국보법 폐지’ 주장(00. 7. 7 2면 1651호) /12
- 국가보안법, 어떻게 할 것인가? - 여야 국회의원 설전(00. 7. 19 2면 1658호) /26
-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 - “국보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”(00. 7. 22 1면 1661호) /31
- 국보법 폐지법률안 마련 - 송석찬의원, 본회의 상정 목표 서명작업 시작(00. 8. 18 1면 1678호)/69
- 국회의원 143명 ‘국보법 개폐’ 입장 - 경실련 통일협회 설문조사(00. 8. 26 2면 1684호) /82
-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- 국보법 폐지,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(00. 9. 1 1면 1688호) /91
-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, 행동 돌입(00. 10. 3 2면 1707호) /134
- “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하나” - 민주당 토론회, 존치·폐지 설전(00. 10. 10 1면 1711호) /141
- 노벨상은 받았지만... 현 정권 2년차 국보법 구속 286명(00. 10. 14 1면 1715호) /149
- 해외 인권단체 활동가들, ‘국보법 폐지’ 연대행동(00. 10. 20 2면 1719호) /162
-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-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(00. 10. 26 1면 1723호) /173
- “김용갑은 독사의 족속” - 천주교연대, 색깔론 규탄(00. 11. 16 1면 1738호) /209
- 의원 21명, 국보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- 사회단체들도 압력 가세(00. 11. 29 1면 1747호) /227
- “국보법 폐지” 한나라당 접거 - 청년학생 6명, 냉전사고 폐기 촉구(00. 11. 30 1면 1748호) /229
- “국보법 52년, 이제 무덤으로” - 단식농성·국회앞 시위 등 이어져(00. 12. 2 1면 1750호) /236
- 민주당 서영훈 대표, “국가보안법 연내 개정”(00. 12. 6 1면 1752호) /240
- 19개 인권단체 ‘인권개선 실천’ 촉구 - “인권관련법 연내 처리!”(00. 12. 9 1면 1755호) /246
- <인터뷰> 윤기원(민변 사무총장), “이대로 가면 인권법·국보법 실종”(00. 12. 13 2면 1757호)/253
- 국보법 폐지·인권위법 제정 한 목소리 - 민주화운동 원로 호소문발표(00. 12. 14 1면 1758호)/254
- 여야의원 95명 인권위법 발의, 변호사·교수 국보법 철폐 시위(00. 12. 14 1면 1758호) /254
- 인권사회단체 대표자, “국보법 폐지·인권위법 제정” 대통령에 촉구(00. 12. 15 2면 1759호) /257
- 인권단체 활동가 단식돌입 - 국보법·인권위법 등 인권현안 처리 촉구(00. 12. 19 1면 1761호)/260
- 인권활동가들 단식 해제, “구조조정 반대투쟁 호릴 수 없어”(00. 12. 20 2면 1762호) /263
- 인권활동가 노상 단식농성 - 인권대통령에 최후통첩, 국보법 등 해결 촉구(00. 12. 29 1면 1768호) /274

▷국보법 사건

- 수배자소식 통신에 올린 황선동 군 징역2년 구형(00. 7. 13 1면 1655호) /19
- 무리한 기소, 선고유예 판결 - 황선동 씨 국가보안법 선고 공판(00. 7. 21 1면 1660호) /29
- “국보법의 피해자는 전국민이다” - ‘한국사회의 이해’ 6년만의 ‘무죄’ 선고(00. 7. 25 1면 1662호)/34
- 국정원, 연이어 민혁당 잡아간다(00. 8. 24 2면 1682호) /78
- 왜 지금 ‘민혁당’ 인가? - 잇따른 연행,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(00. 8. 30 2면 1686호) /86
- 국정원 억지수사, 청소년까지 유린 - 민혁당 관련, 고 3생 참고인 소환(00. 9. 2 1면 1689호) /93
- 국정원 여고생 소환 불발(00. 9. 5 1면 1690호) /95
- 한총련, ‘영원한 국보법 제물’ - 정상회담 이후에만 수십명 연행(00. 9. 21 2면 1699호) /115
- 국정원 공작 의혹 또 제기 - 청주지역 노동자 “간첩조작” 폭로(00. 9. 29 2면 1705호) /128
- 대공수사반, 인터넷방송국 침탈 - ‘청춘’ 대표 등 3명 국보법 혐의 연행(00. 10. 26 1면 1723호)/173
- 인터넷방송단체들, ‘청춘’ 구속 규탄(00. 10. 27 2면 1724호) /177
- 북한소설 출판인 국정원 연행 - <살림터> 송영현 대표(00. 11. 9 1면 1733호) /198
- 국보법 적용 줄줄이 구속 - 경찰, 기무사 한건씩(00. 11. 16 1면 1738호) /209

국가인권위원회

- 인권위원회 위상 싸고 격돌 : NGO, 대규모 토론회 - 법무부 입법예고(00. 8. 25 1면 1683호) /79
- <해설> ‘인권법’(안), 무엇이 문제인가?(00. 8. 25 2면 1683호) /80
-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- 국보법 폐지,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(00. 9. 1 1면 1688호) /91
- <지상중계>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 토론회(00. 9. 6 2면 1691호) /98
- 법무부 통제 막겠다 - 250여 인권활동가 ‘인권위 독립성 촉구’ 결의(00. 9. 7 2면 1692호) /100
- 여당, 인권법 의원입법 시사 - 이해찬 의장, “당내 기구 구성 여론수렴”(00. 9. 16 1면 1696호)/108
- “인권위 국가기구화 박차 가하자” - 인권단체들, 정대철 의원 언급 환영(00. 11. 3 1면 1729호)/190
- <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>① 인권위법인가? 인권법인가?(00. 11. 22 1면 1742호) /217
- <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>② 민간기구냐? 국가기구냐?(00. 11. 23 2면 1743호) /220
- <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>③ 소속없는 국가기관, 위헌인가?(00. 11. 25 2면 1745호)/224
-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! -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(00. 11. 28 1면 1746호) /225
- 민주당 인권특위, 인권법안 확정 - ‘인권위 독립성’ 수용, ‘실효성’ 후퇴(00. 11. 29 1면 1747호)/227
- <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> ④ 인권위원 면책특권(00. 11. 29 2면 1747호) /228
- “인권법 수준미달, 수용불가” - 인권기구 공대위, 민주당안 거부(00. 12. 1 1면 1749호) /233
- 여야의원 72명, 인권위법 발의키로 - “전시용 안돼” 인권단체 의견 반영(00. 12. 9 1면 1755호)/246
- 19개 인권단체 ‘인권개선 실천’ 촉구 - “인권관련법 연내 처리!”(00. 12. 9 1면 1755호) /246
- <인터뷰> 윤기원(민변 사무총장), “이대로 가면 인권법·국보법 실종”(00. 12. 13 2면 1757호)/253
- 국보법 폐지·인권위법 제정 한 목소리 - 민주화운동 원로 호소문발표(00. 12. 14 1면 1758호)/254
- 여야의원 95명 인권위법 발의, 변호사·교수 국보법 철폐 시위(00. 12. 14 1면 1758호) /254
- 인권사회단체 대표자, “국보법 폐지·인권위법 제정” 대통령에 촉구(00. 12. 15 2면 1759호) /257
- 인권단체 활동가 단식돌입 - 국보법·인권위법 등 인권현안 처리 촉구(00. 12. 19 1면 1761호)/260
- 인권활동가들 단식 해제, “구조조정 반대투쟁 호릴 수 없어”(00. 12. 20 2면 1762호) /263
- 인권활동가 노상 단식농성 - 인권대통령에 최후통첩, 국보법 등 해결 촉구(00. 12. 29 1면 1768호) /274

근의문사

- 먼저간 아들을 대신해 싸운다 - 근의문사 유가족, 국방부 앞 삭발농성(00. 10. 18 1면 1717호) /155
- “군 사망사건 수사 부실” - 한해 1백명 이상, 자살로 보고돼(00. 11. 3 2면 1729호) /191

노동

- ‘노동자 탄압’ 계속될 듯 - 스위스, 힐튼호텔에도 경찰투입 공언(00. 7. 1 1면 1647호) /1
- “대통령은 사과하라” - 민주노총 대규모 시위, 전국으로 확산(00. 7. 7 2면 1651호) /12
- 노동자 집회, “합법과 비합법은 정부 마음”(00. 7. 7 2면 1651호) /12
- 경찰,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집단구타(00. 7. 11 1면 1653호) /15
- 호텔3사 순회 집회, ‘성실한 교섭’ 촉구(00. 7. 28 2면 1665호) /42
- 껌데기만 노동시간 단축 - 노동연구원 발표에, 노동계 “사용자 대변” 비판(00. 8. 2 1면 1668호)/49
- ‘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’(한국노동연구원) 주요 내용(00. 8. 2 1면 1668호) /49
- <인터뷰> 명동성당 농성중인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(00. 8. 2 2면 1668호) /50
- “집회 참가할 교통비조차 없다” - 터전 잃고 떠도는 노동자들(00. 8. 4 1면 1670호) /53
- (주) 새한, 유령노조·용역깡패 시비 - 농성자 “전기봉, 가스총 맞았다” 주장(00. 8. 4 2면 1670호) /54
- <판결문 요약> 부산지법 민사부 - 신선대,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(00. 8. 9 2면 1673호) /60
- 오토론 구속노동자 석방(00. 8. 17 1면 1677호) /67
- “죄질 나쁘다”, 보석 기각 - ‘스위스’ 노조 김성래·윤재성 부위원장(00. 8. 18 2면 1678호) /70
- 노동위 심사관 노동자에 폭언 - “내가 사장이어도 당신들을 자르겠어!”(00. 8. 31 1면 1687호) /87
- “그대 뒷모습 영원히”, 사회보험 노조 고 최진욱 씨 영결식(00. 8. 31 1면 1687호) /87
- <기고>부당착취와 취업방해에 맞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- 박정미(00. 9. 9 2면 1694호) /105
- 중앙일보 계열사 위장폐업 - 노동계, “노조 말살 책동” 반발(00. 9. 16 1면 1696호) /108
- 생존권보다 국제회의가 중요? - 경찰, 스위스그랜드호텔 집회 강제해산(00. 9. 22 1면 1700호)/117
- ‘마마’ 노동자를 아십니까? 체불임금 해결·고용승계 촉구 두달째 농성(00. 9. 22 2면 1700호)/118
- “경찰청장이 근기법 위반” - 면허시험장 노조, 체불임금 고소(00. 9. 26 1면 1702호) /121
-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폭행수난 - “수당지급·블랙리스트 폐기” 촉구(00. 9. 27 2면 1703호) /124
- 퇴직 앞두고 열심히 뛰었지만..., 경북 상주 탄광노조위원장 분신자살(00. 10. 12 1면 1713호) /145
- KBS에 겨울공화국 오는가 - 노조죽이기에 ‘박 사장 퇴진’으로 맞서(00. 10. 24 1면 1721호) /167
- ‘절망의 공장’으로 변한 현대중공업① - 일상화된 감시통제(00. 10. 25 1면 1722호) /170
- ‘절망의 공장’으로 변한 현대중공업② - 한순간에 뺏긴 기본권(00. 10. 26 2면 1723호) /174
- 노동시간 감축 핑계, 근기법 개악 우려 - 노사정위 합의안 문제점(00. 10. 27 2면 1724호) /177
- “왜 노동자만 죽어야 하나요” - 퇴출 건설노동자, 29일 총파업 선언(00. 11. 7 1면 1731호) /194
- 대우자동차 부도, 노동자와 무관 - 정부·채권단, 의도적 책임전가(00. 11. 11 3면 1735호) /204
- 생존권투쟁에公安대책협의회로 응수 - 노동자대회 참가자 체포(00. 11. 18 1면 1740호) /213
- 작업장통제 방식 갈수록 고도화 - 대전 한라공조, 신형자동센서 도입(00. 11. 21 1면 1741호) /215
- 노동3권 무색한 운전학원 강사 - 노원자동차학원, 노조탄압 일관(00. 11. 22 1면 1742호) /217
- 통합정보시스템, ‘침단’ 노동강도 강화 수단 - (주)만도 노사대립(00. 11. 23 2면 1743호) /220
- 양대 노총 위원장 공동 발표, “구조조정 반대 강력투쟁”(00. 11. 25 1면 1745호) /223

- 민주노총 등, “경제계 시국선언은 자본가 집단이기주의” 비판(00. 12. 7 1면 1753호) /242
- <자료> ‘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선언’, ‘경제단체장의 집단이기 시국선언’(00. 12. 7 2면 1753호)/243
- 벤처기업 병역특례노동자, “용도폐기” 일방적 퇴출(00. 12. 12 1면 1756호) /250
- ‘OK! 꿈수’, 불법파견근로 은폐 - SK(주) 도급계약 위장, 노조원 해고(00. 12. 13 1면 1757호) /252
- “가족들 피자회사 근무 제한”, 무리한 ‘경업금지’ 규정...노동자 반발(00. 12. 13 2면 1757호) /253
- 명동성당의 ‘구조조정 반대’ 합성 - 한통 정규직 노조 파업농성 돌입(00. 12. 19 1면 1761호) /260

▶롯데호텔·사회보험노조 파업

- 경찰투입은 계획된 시나리오 - 건강보험공단, 타결직전 엉뚱한 요구(00. 7. 4 1면 1648호) /4
- “롯데진압 묵과 못해” - 시민단체, 진상조사단 구성·책임자 처벌 요구(00. 7. 5 2면 1649호) /8
- “이사장을 보호하려 했다” - ‘노조폭력’ 언론보도,公安정국 조성용?(00. 7. 6 2면 1650호) /10
- 테러진압부대 임무는 노동자 테러? - 설치근거 대통령 훈령47호 대외비(00. 7. 12 1면 1654호) /17
- “시민·사회단체 침묵, 이해 안돼” - 단병호 위원장 삭발 투쟁(00. 7. 12 1면 1654호) /17
- 노동자에 본때 보이려 테러진압부대 투입(00. 7. 13 1면 1655호) /19
- “사람새끼도 아니니 그냥 밟아”-민노총·인권운동사랑방 ‘경찰폭력’ 조사(00. 7. 14 1면 1656호)/21
- <만화사랑방> 대 테러진압 전투경찰 롯데호텔 노동자에 폭력 휘둘러(00. 7. 14 1면 1656호) /21
- 44개 테이프 중 16개는 어디로? - 법원, 호텔 롯데 압수 수색(00. 7. 14 2면 1656호) /22
-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- 호텔 롯데 노조, 경찰청장 고소(00. 7. 15 2면 1657호) /24
- “특공대 폭행 있었다” - 최소한 27분간 폭언, 군화발로 짓밟개(00. 7. 21 1면 1660호) /29
- <인터뷰> 성기안(호텔롯데 연회팀) “특공대, 폭력제압 후 교체”(00. 7. 21 2면 1660호) /30
- “술개 부대원은 짐승이었다” - 롯데 노조원 96명, 특공대 폭행 증언(00. 7. 27 2면 1664호) /39
- 노조원 증언 모음 - 호텔롯데 36·37층 상황(00. 7. 27 2면 1664호) /39
- “너무도 기막히고 억울하고 서러웠다” - 호텔롯데 잠실 면세점 이은 씨(00. 7. 27 3면 1664호) /40
- 민주노총 대정부 총력투쟁 선포 - 지도부 전원 무기한 농성투쟁 돌입(00. 7. 28 1면 1665호) /41
- 롯데 진압현장 촬영필름 있다 - YTN 기자, “공포의 도가니”(00. 8. 3 1면 1669호) /51
- 경찰, 롯데호텔 폭력진압 일부 시인 - 인권운동사랑방, 경찰청장 등 고발(00. 8. 3 1면 1669호) /51
- ‘인권대통령’ 의심스럽다 - 노동자 폭력진압, 국제사회 비난 빗발(00. 8. 11 1면 1675호) /63
- 롯데노조 정주영 위원장 첫공판(00. 8. 11 2면 1675호) /64
- 롯데·스위스 호텔, 협상 난항 - ‘고소·해고 철회’ 문제가 협상 걸림돌(00. 8. 17 1면 1677호) /67
- 호텔롯데 노조위원장 반대신문(00. 8. 19 2면 1679호) /72
- 비정규직·성희롱 문제 여론화 - 호텔롯데 노사교섭 타결, 해고자 5명(00. 8. 22 1면 1680호) /73
- 롯데 폭력경찰 징계 호지부지 - 경찰청, 신원공개 요구도 거부(00. 8. 23 1면 1681호) /75
- ‘경찰 비난하면 민·형사 책임 묻겠다’ - 노조 소송에 경찰 발끈(00. 8. 25 1면 1683호) /79
- <인터뷰> 사회보험노조 최재기 대변인 “경찰진압 침묵 이해 안돼”(00. 9. 21 2면 1699호) /115
- 롯데 경찰투입, 노동부가 요청- 김문수 의원 “노동부·검찰 사전공모”(00. 10. 31 1면 1726호)/181
- 노동자는 구속, 경찰은 기소유예 - 호텔롯데 ‘폭력’, 전원 불기소(00. 11. 23 1면 1743호) /219

▶비정규직

- 학원강사들의 권리 찾기(00. 8. 10 1면 1674호) /61
- KBS 대량해고 방침 파문 - 노조, “총파업 대응” 반발(00. 9. 15 1면 1695호) /106
-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, 저임금·장시간노동·산업재해 악순환(00. 9. 21 1면 1699호) /114

-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- 민주노총,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(00. 10. 5 2면 1708호) /136
- 비정규직 권리보장 백만인서명운동 돌입(00. 10. 6 1면 1709호) /137
- 식당노동자 125일만의 승리 - 진주경상대 정규직 고용승계(00. 11. 11 2면 1735호) /203
- 한통 계약직 노조, 구조조정 반대 파업(00. 12. 14 2면 1758호) /255
- 한통 계약직, 연말 총력투쟁 - 7천여 노동자 해고시한 1주일 남아(00. 12. 27 1면 1766호) /270
- 비정규직 고용안정 한 목소리 - 한통 계약직·이랜드 등 연대투쟁(00. 12. 28 2면 1767호) /273

▷산업제해

- 부당해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-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해매(00. 7. 14 2면 1656호) /22
-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- 노동자·의료인 토론회 한 목소리(00. 7. 15 2면 1657호) /24
- '왕따'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산재 인정(00. 9. 8 2면 1693호) /103
- <산재추방운동가 죽음을 기리며> 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재 현실(00. 9. 15 2면 1695호) /107

▷삼성그룹 무노조정책

- "무노조 아성을 깨뜨리자" - 삼성해고자 1700명 원직복직 요구(00. 10. 3 2면 1707호) /133
- 삼성SDI, 또다시 노동자 납치 의혹 - 지난해에도 노조결성 방해 전력(00. 10. 13 2면 1714호) /148
- 삼성SDI 악랄한 무노조정책 - '납치' 의혹 노동자 돌아와(00. 11. 22 1면 1742호) /217
- <인터뷰> 삼성SDI노동자 김갑수씨 - 삼성, 노조 싹만 보이면 짓밟아(00. 11. 22 2면 1742호) /218
- <기획>무노조 삼성 인권유린을 고발한다① '덧'에 걸린 노동자(00. 12. 20 1면 1762호) /262
- <기획>무노조 삼성 인권유린을 고발한다② 무노조 정책도 '분사'(00. 12. 21 2면 1763호) /265
- <기획>무노조 삼성 인권유린을 고발한다③ 격리·감금·회유 총동원(00. 12. 22 2면 1764호) /267
- <기획>무노조 삼성 인권유린을 고발한다④ "무노조, 세습경영서 비롯"(00. 12. 23 2면 1765호)/269
- 삼성에 신노사문화대상이라니? - 무노조 신화, 전근대적 노동탄압(00. 12. 29 1면 1768호) /274

▷이랜드 노조 투쟁

- 이랜드 불법·부당행위 진상조사 결과 - 걸은 반듯, 속은 굼았다(00. 9. 7 2면 1692호) /100
-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 노조- 파업 176일, 정규·비정규직 한몸투쟁(00. 12. 8 1면 1754호)/244
- 이랜드 노조원 증계동 전산실 점거투쟁 - 전원 경찰에 연행(00. 12. 9 1면 1755호) /246
- 비정규직 고용안정 한 목소리 - 한통 계약직·이랜드 등 연대투쟁(00. 12. 28 2면 1767호) /273

▷철도노동자

- 부당전출에 내몰린 한 철도 노동자의 죽음(00. 7. 6 2면 1650호) /10
- '철도원' 부당 징계 이어 사법처리 - 부산정비창 공투본 지도부 구속(00. 7. 12 2면 1654호) /18

▷특수근로관계 노동자

- 보험설계사도 노동자다 - 근기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100만여 명(00. 8. 24 1면 1682호) /77
- 골프장 어용자치회 등장 - '근로자 인정' 여부 논란(00. 9. 15 1면 1695호) /106
- 보험모집인 노조 설립필증 보류 - 구청, "보험모집인 근로자성 부정"(00. 10. 19 1면 1718호) /158
- 신중 노동착취 합법화 -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 비판(00. 11. 3 2면 1729호)/191
- 부릴 땀 노동자, 법적보호는 배제 - 골프경기보조원 등 근로실태(00. 11. 25 2면 1745호) /223

농민

- 서울하늘 찢른 농민들의 분노 - 전국농민대회, "농업정책 바꿔라"(00. 7. 26 1면 1663호) /36
- "우리 농민 다 죽어..., 앞으로 농사 못 지어"(00. 7. 26 1면 1663호) /36
- "경찰이 돈까지 빼앗았다" - 전농, 농민 대회 피해 보상 요구(00. 7. 27 1면 1664호) /38

도시빈민

- 노점상 단속 비상! - "아셈 앞둔 거리 청소" 의혹(00. 8. 26 1면 1684호) /81

▷노숙자

- "여긴 사람사는 곳이 아니에요" - 버려진 주거공간 영등포 '쪽방' 지역(00. 11. 4 1면 1730호) /192
- <현장>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'쪽방' 지대(00. 11. 10 2면 1734호) /201
- 굶어도 아파도 지원은 없어 - 쪽방 거주민 실태 드러나(00. 11. 29 2면 1747호) /228
- <현장> 2000 한국의 노숙자 - 그들에 대한 편견의 시선부터 거두자(00. 12. 15 1면 1759호) /256
- <기고> 땀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- 박효원 연세대 사회복지학과(00. 12. 16 2면 1760호) /259

동성애자

- 동성애자 최초 공개 행진 - 같은 사람임을 보이고 싶다(00. 8. 26 2면 1684호) /82
- 커밍아웃 홍석천 씨, 방송에서 '아웃' - 각계, 홍씨 지지선언 준비(00. 9. 29 2면 1705호) /128
- <인터뷰> 홍석천 씨, "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"(00. 9. 29 3면 1705호) /129
- 홍석천 씨 커밍아웃과 관련된 인권단체 의견(00. 9. 29 3면 1705호) /129
- 각계 인사들, 커밍아웃 지지모임 발족(00. 10. 5 2면 1708호) /136
- <동성애 일문일답> 원손잡이가 변태가 아니듯(00. 10. 5 2면 1708호) /136
- 동성애자 국회출석 결국 무산 - 홍석천씨 증인채택 안돼(00. 11. 8 2면 1732호) /197
- 민주당 고진부 의원 공개 해명 "동성애자 국회출석 당연"(00. 11. 9 1면 1733호) /198
- <반박문> 홍석천씨 국감증언 불허사태의 진상 -동성애자인권연대(00. 11. 14 1면 1736호) /205

보안관찰법

- '간첩'복역자 무조건 패소 -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(00. 7. 22 1 1661호) /31
- 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 관련자, 보안관찰처분 면제 통보(00. 9. 22 2면 1700호) /118
- 법무부 변명 '허튼소리'로 판명 - 법원, "보안관찰 자료 공개하라" 판결(00. 9. 30 1면 1706호) /130
- 보안관찰 몇몇하면 밝혀라 - 법원, 또다시 '정보공개하라' 판결(00. 10. 21 2면 1720호) /164
- "보안관찰 끝나도 벌금은 내라" - 김삼석 씨 항소심서도 패소(00. 11. 24 1면 1744호) /221

▷서준식 사건

-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- 법원, "공산주의 사상 갖고 있다 추단돼"(00. 9. 28 1면 1704호)/125
- <성명>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- 인권운동사랑방(00. 9. 29 1면 1705호) /127

-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- 인권영화제 사건 등 보안관찰법 족쇄(00. 11. 24 2면 1744호) /222
-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(00. 11. 24 2면 1744호) /222
- “서준식 무죄!” 국내외 성명 이어져 - 다음주 항소심 선고공판(00. 12. 15 2면 1759호) /257
- 서준식 대표 선고공판 연기(00. 12. 19 1면 1761호) /260

양심수/정치수배자/해외망명자

- 민주화운동가 농락마라 - 송두율 교수 입국불허 규탄(00. 7. 6 1면 1650호) /9
- 준법서약서는 인권유린제도(00. 7. 7 2면 1651호) /12
- 수배해제자 재구속 날벼락(00. 7. 13 2면 1655호) /20
- 미결 양심수·수배자도 풀자 - 또 다시 우려되는 ‘생색용 사면’(00. 8. 4 1면 1670호) /53
- ‘국보폐지 국민연대’, “양심수 석방·정치수배 해제·귀국제한 철폐” 촉구(00. 8. 8 1면 1672호) /57
- “명동성당을 비우자” - 정치 수배자 사면 제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(00. 8. 9 2면 1673호) /60
- 민가협 341차 목요집회 - 보랏빛 수건을 벗어 던질 날은 언제?(00. 8. 11 2면 1675호) /64
- “아직도 많은 양심수 창살 안에” - 국제앰네스티, 8·15 사면 입장 발표(00. 8. 18 2면 1678호) /70
- 국보법에 가로막힌 남매의 마지막 인사 - 장진숙씨, 동생 임종 못 지켜(00. 12. 20 2면 1762호)/263
- 농성수배자들 갈 곳 잃어 - 명동성당측, 성탄행사 이유 천막 철거(00. 12. 23 1면 1765호) /268
- 정치수배자들 임시거처 기거 - 명동성당 “농성불가” 방침 천명(00. 12. 27 1면 1766호) /270

사회보장

- 공공근로 예산 삭감 마라 -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, 한나라당사 앞 농성(00. 7. 19 2면 1658호) /26
- 민주노총·참여연대 등, “속빈 강정 사회보장제도” 비판(00. 9. 8 2면 1693호) /103

성폭력

▷호텔롯데 성희롱

- 호텔 롯데 183명 ‘성희롱’ 집단소송, 여성·노동계 사용자 고발(00. 7. 6 1면 1650호) /9
- “사업주를 처벌하라” - 여성·노동계, 호텔 롯데 성희롱 고발(00. 7. 13 2면 1655호) /20
- “성희롱 예방교육했다” - 호텔 롯데 사측, ‘서명부’ 들고 나와(00. 7. 19 1면 1658호) /25
- ‘성희롱’은 목적달성 위한 수단? 경총, 호텔롯데 노조 음해(00. 7. 26 2면 1663호) /37
- 롯데 성희롱 집단소송 - 회사·경영진·상습 성희롱자 대상(00. 8. 10 1면 1674호) /61

어린이·청소년

- 청소년들의 이유있는 저항 - 두발자유 권리 요구 들끓어(00. 9. 27 1면 1703호) /123
- <인터뷰> 전국중고등학생연합(준) 대표, “인권은 당사자가 찾아야죠”(00. 9. 27 2면 1703호) /124
- “우리가 주체로! 권리를 찾아서!” - 중고등학생들, ‘학교민주화선언’ 발표(00. 10. 3 1면 1707호) /133
- 학생 ‘관리’ 도구, 교칙을 해부한다 - ‘인권을 찾자, 교칙을 찾자’ 캠페인(00. 12. 7 1면 1753호)/242
- 학생 인권운동, 어깨 걸고 나선다 - 전국중고등학생연합 공식 출범(00. 12. 23 2면 1765호) /269

▷청소년보호법

- “청소년보호법, 또 하나의 검열장치”-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 토론회(00. 9. 16 2면 1696호)/109
- 문화연대, 정보법 폐지운동 전개- “청소년 인권·문화표현의 자유 침해”(00. 9. 28 2면 1704호)/126
-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-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, 정보법에 옮겨(00. 11. 14 1면 1736호)/205
- 통제·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- 청소년보호법 공대위 발족(00. 11. 17 2면 1739호) /212

온라인공간 표현의 자유

- 네티즌 의사표현 ‘테러’로 매도 - 오락가락 정통부, 진위 의심(00. 8. 29 1면 1685호) /83
- <인터뷰>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, “사이버 연좌시위라 불러달라”(00. 8. 29 1면 1685호)/83
- 온라인 운동에 공권력 빨간불 - 경찰청, 진보네트워크 압수·수색(00. 8. 30 1면 1686호) /85
- 온라인 시위, ‘사이버테러’ 혐의 벗어-경찰청 “정통부 고소, 증거 없다”(00. 10. 17 1면 1716호)/152
-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-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, 정보법에 옮겨(00. 11. 14 1면 1736호)/205
- 온라인게임에도 레드컴플렉스 - 리니지, ‘김일성’ 계정등 삭제키로(00. 11. 15 1면 1737호) /207
- 홈페이지 운영원칙에 관한 토론 - 자유게시판, 삭제로 해결 안된다(00. 11. 30 1면 1748호) /229
- 홈페이지도 ‘표현의 자유’ 존중해야 - 게시판 운영, 네티즌 관점에서(00. 11. 30 2면 1748호) /230

▷통신질서확립법

- ‘통신질서확립법’ 밀실추진 - 정통부에 권한 집중, 통신검열 우려(00. 7. 20 2면 1659호) /28
- “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” - ‘통신질서확립법’ 공청회, 정통부 질타(00. 7. 21 2면 1660호) /30
- ‘통신질서확립법’ 수정안도 마찬가지로(00. 8. 31 1면 1687호) /87
-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- 시민공청회 열려(00. 9. 6 1면 1691호) /97
-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- 정통부·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(00. 9. 20 1면 1698호) /112
- 41개 사회단체 성명, “통신질서확립법 폐기” 촉구(00. 9. 21 2면 1699호) /115
- <자료>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(00. 9. 21 2면 1699호) /115
- 들끓는 함성 “인터넷 검열반대” - 네티즌, 온·오프라인 오가며 시위(00. 9. 26 1면 1702호) /121
- 정통부 ‘꼼수’로 국민 기만 - 인터넷 규제·검열 오히려 강화(00. 9. 28 1면 1704호) /125
- 온라인 통제 3법, 당정협의 통과 - 40여 사회단체, 반대의사 거둬 표명(00. 10. 20 2면 1719호)/161
- 여야의원, ‘인터넷 검열반대’ -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온라인시위(00. 10. 31 1면 1726호) /181
-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“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통제법 반대” 성명(00. 11. 9 2면 1733호)/198
- 통신법 독소조항, 무사통과 전망 -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(00. 12. 6 1면 1752호) /240
- 통신질서확립법, 법안심사소위 통과(00. 12. 7 2면 1753호) /243

이주노동자

- <기고>무엇을 위한 이주노동인가? - 제이 마크Jay Mark(00. 9. 2 2면 1689호) /94
- 인권의 사각지대, 여성 이주노동자 - “아이 지출래 위약금 몰래?”(00. 9. 8 1면 1693호) /102
- 고용허가제, 이대로 안 된다 - 말로만 근로자, ‘인권보장’ 미비(00. 10. 10 1면 1711호) /141
-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- 이주노동자 권리실현 토론회(00. 10. 18 2면 1717호) /156

- 경찰, 불법체류자에 가혹행위 - 통역인도 없이 짓밟고 상처치료도 느장(00. 10. 19 1면 1718호)/158
- 이주노동자, 농장에서 강제노역- 농장주, 대체인력 구하라며 임금 뺏어(00. 10. 28 1면 1725호)/178
- <기고>25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사회적 연대들거리 형성이 시급하다
 - 이윤주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집행국장(00. 10. 28 2면 1725호)/179
-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발족 - 고용허가제 곳곳 독소조항(00. 11. 4 2면 1730호)/192
- 이주노동자 가혹수사 사실로 드러나 - 수원지역 인권단체들 진상발표(00. 11. 10 1면 1734호)/200
- 가혹수사 당한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- 진상조사단, 손배소송 방침(00. 11. 11 3면 1735호)/204
- 단식농성 들어간 중국동포들, “절망끝에 벌이는 필사의 투쟁”(00. 12. 2 2면 1750호)/237

자결권과 미국

- 한강 독극물방류 사건, 미 사령관 퇴진·미 대통령 ‘직접 사과’해야(00. 7. 20 1면 1659호)/27
- 주한미군에 한총련 경계령 - “한총련이 너희를 납치할지 모른다”(00. 8. 2 2면 1668호)/50

▶매향리 미군폭격장

- 매향리, “더이상 속지 않겠다” - 국방부 발표에 주민, 시민사회단체 일제 반발(00. 7. 5 2면 1649호)/8
- 화성경찰서, 변호사 선임계 없다고 매향리 시위 연행자 접견 제한(00. 7. 19 1면 1658호)/25
-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- 국가측, 패소예감 지연작전?(00. 8. 17 2면 1677호)/68
- 국방부, <추적60분> 보도에 탄지 - 후속물 방영취소 압력, 손배소송(00. 8. 17 2면 1677호)/68
- ‘매향리 종합대책’은 미봉책 - 토지·어장 문제 외면, 주민과 협의 안해(00. 8. 19 1면 1679호)/71
- “피고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미군” - ‘매향리’ 첫 공판 피고인들 모두진술(00. 8. 22 2면 1680호)/74
- 매향리 공대위 구속자 보석석방(00. 8. 26 2면 1684호)/82
- <현장> 매향리 주민대책위를 찾아(00. 9. 8 2면 1693호)/103
- “백악관으로 항의메일을” - 매향리 관련 온라인 시위, 방미시위단 파견(00. 9. 20 1면 1698호)/112
- 정부, 매향리 항공사고 위험 쉬쉬 - 미 조사단, “가능한 빨리 이전” 권고(00. 9. 23 2면 1701호)/120
- 매향리 문제, 민·형사소송 속개(00. 9. 23 2면 1701호)/120
- 매향리 투쟁 계속, 사회단체 ‘기자회견’(00. 11. 4 2면 1730호)/193
- 매향리 주민들 KNCC인권상 수상 - 법원에선 주민들에게 유죄선고(00. 11. 18 2면 1740호)/214

▶파주 스토리사격장

- 미군 포사격에 삶의 터전 잃은 농민 - 스토리사격장 농민 상경시위(00. 12. 7 2면 1753호)/243
- 미군 사격장에 농토 빼앗기다 - 스토리사격장 인근마을 없어질 판(00. 12. 28 1면 1767호)/272
- <인터뷰> 주민 조봉현씨, “내 땅이 공여지에 포함되는지조차 몰라”(00. 12. 28 1면 1767호)/272

▶한미주둔군지위협정(소파)

- 미국측 ‘소파’ 협상안 규탄 - “개정이 아닌 개악이다”(00. 7. 12 2면 1654호)/18
- “미국 측 시안 고려 안해” - 사회단체 대표자 여야·외통부 관계자 면담(00. 7. 13 2면 1655호)/20
- 소파협정 헌법소원 - “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”(00. 7. 20 1면 1659호)/27
- 탑골공원 노인들 즉석 토론 - “법적으로 못 따지게 한 거, 그게 소파야”(00. 7. 20 1면 1659호)/27
- 새움터 등, 소파개정에 ‘기지촌’ 문제 책임 명시 요구(00. 7. 26 2면 1663호)/37
- SOFA, 여성인권침해 금지원칙 필요(00. 7. 28 2면 1665호)/42

- ‘소파개정’ 시능으로 봐줄 수 없다 - 협상 압박, 사회단체 요구사항 구체화(00. 8. 1 1면 1667호)/47
- ‘소파 항의방문단’ 미국행, 워싱턴 시위 및 상·하원 의원 면담 예정(00. 9. 22 1면 1700호)/117
- 소파개정 미국방문단 활동 본격화 - 미 상원의원 및 주미대사 면담(00. 9. 28 2면 1704호)/126
- 소파개정투쟁 방미대표단 귀국, “해외단체와 공동투쟁 결의”(00. 10. 6 1면 1709호)/137
- 경찰포위망 속 기자회견, “소파개정 열망 외면말라”(00. 11. 30 2면 1748호)/230
- 미국 눈치 살피기 바쁜 한국정부 - 소파협상 관련, 시위대 접근 방해(00. 12. 6 2면 1752호)/241

장애인

- 시설비리에 멍드는 장애인 - 성폭행·후원금 횡령, 같은 시설에서 세 번째(00. 7. 28 1면 1665호)/41
- “장애인 교육에 불씨가 되자” - 일곱 돌 맞은 ‘노들 장애인 야학’(00. 8. 9 1면 1673호)/59
- “장애인 실업대책 세우라”, 장애인고용촉진대회장에 기습시위(00. 9. 9 1면 1694호)/104
- 중도실명장애인들, 안마사협회 앞 농성 - 사람답게 일하며 배우고 싶다(00. 11. 1 1면 1727호)/185
- <속보> 중도실명장애인들 농성 타결(00. 11. 3 1면 1729호)/190

▶에바다사태

- 에바다대학생연대, 의장 구속(00. 7. 4 1면 1648호)/4
- 평택시, 에바다 정상화 의지 없다 -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(00. 7. 7 1면 1651호)/11
- 평택시장, 이사진 구성 밀어붙여 - 대학생들, 이순신 동상 올라가 시위(00. 7. 15 1면 1657호)/23
- 에바다 사태 4주년, 구재단 입김 여전·정상화 난망(00. 11. 28 1면 1746호)/225

주거

- 삼성건설직원, 남가좌동 철거민 폭행(00. 7. 5 2면 1649호)/8
- 월곡동 철거용역, 사람 있는데 포크레인 밀어붙여 - 행인도 검문(00. 10. 3 1면 1707호)/133
- <현장> 철거촌 두 풍경 - 구리시 최촌마을 및 인창마을(00. 10. 6 2면 1709호)/138

집회시위의 자유

- “돈 내고 시위하세요!” - 경찰, 시위대 도로사용료 찬반조사(00. 7. 25 1면 1662호)/34
- 아직도 ‘국가대사’가 우선이나 - 민주노총 집회 시위전력 문제삼아 불허(00. 7. 27 1면 1664호)/38
- 집회·시위 흠집내기 계속 - 경찰, 집회 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 요구(00. 8. 1 1면 1667호)/47
- 공안 바람에 기본권 날아갈 판 - 민주노총·전농 등 집회 모조리 금지(00. 8. 3 2면 1669호)/52
- 경찰, 집회 ‘허가제’로 착각하고 있다 - 민주노총, 전농은 집회 생각도 말라(00. 8. 5 1면 1671호)/55
- 집회 신고시 각서 내지 말자 - 충북 경찰청, “법적 근거 없다” 시인(00. 8. 8 1면 1672호)/57
- 도심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- ‘돈 없으면 집회도 못하나’ 반발 일어(00. 8. 18 1면 1678호)/69
- 유명단체 동원 집회봉쇄 의혹 - 경찰청 앞 집회 “이미 찻어요”(00. 10. 5 1면 1708호)/135
-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- 회사 앞 ‘집회금지 가처분신청’ 잇따라(00. 10. 20 1면 1719호)/161
- 아셈반대 시위에 곤봉세례 - 서울행동의날 선언문 채택돼(00. 10. 21 1면 1720호)/164
- 미국 눈치 살피기 바쁜 한국정부 - 소파협상 관련, 시위대 접근 방해(00. 12. 6 2면 1752호)/241

- '시위봉쇄' 관행 뿌리뽑자 -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명, 손배소 청구(00. 12. 12 1면 1756호)/250

평화

- 대인지뢰유실실험 및 정책 토론회 - 전쟁이 없어도 '대인지뢰'는 공격 중(00. 7. 28 2면 1665호)/42
- 정의선 복원 관련, 지뢰피해 종합대책 촉구(00. 9. 6 1면 1691호)/97

피구금자 인권

▷유치장 알몸수색

- "수치심 유발 목적이면 불법" - 전교조 교사,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(00. 10. 17 1면 1716호)/152
- 검찰 구치감에서도 알몸수색 - 차수련 보건의료노조위원장(00. 10. 21 2면 1720호)/165
- 알몸수색 발뺌, 거짓으로 드러나 - 경찰 "사실일 경우 목 내놓겠다"(00. 10. 27 1면 1724호)/176
- 민주노총, 알몸수색 규탄집회 열어 - 책임자처벌·장관 면담 요구(00. 11. 2 2면 1728호)/188
-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췌기 - 법원, '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' 선고(00. 11. 11 2면 1735호)/203
- <판결문 요지>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 -2000가합35295(00. 11. 11 2면 1735호)/203
- 전교조등, 알몸수색 경찰 고소(00. 11. 14 1면 1736호)/205
- "구속, 알몸수색 근거 안돼" - 알몸수색 인권침해 논란 토론(00. 12. 6 2면 1752호)/241

▷재소자

- 재소자 징벌 해제 요구에 경찰 폭력행사(00. 8. 2 1면 1668호)/49
- 서신교환, 교도소장 맘대로? - 재소자, 서신교환 불허에 손배소송 제기(00. 12. 14 2면 1758호)/255
- 피명 남긴 채 재소자 사망 - 의정부교도소, 위급한 재소자 방치 의혹(00. 12. 21 1면 1763호)/264
- 의정부 재소자 사인은 '구타' - 12월 27일자에 정정보도(00. 12. 22 1면 1764호)/266
- <정정보도> 의정부재소자 관련 보도(00. 12. 27 1면 1766호)/270

▷피의자

- 화성경찰서, 변호사 선임계 없다고 접견제한(00. 7. 19 1면 1658호)/25
- 구치감 피의자 처우 개선돼야 - 검찰조사 도중 발작 일으킨 피의자 사망(00. 8. 19 2면 1679호)/72
- 피의자 80년대식 불법연행 - 국가정보원, "가족면회도 안 돼!"(00. 8. 22 2면 1680호)/74
- 국정원은 '인권배제' 구역 - 가족 면회도 '수사진행' 이유 거부(00. 11. 10 1면 1734호)/200
-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- 법원, "도주우려 없는 데 무리한 조치"(00. 11. 18 2면 1740호)/214

환경/개발

- "우리 마을 그냥 두소!" - 울산 핵발전소 건립 반대 상경 농성(00. 9. 1 2면 1688호)/92

▷새만금 개발

- 인권단체들, '새만금사업 반대' 성명 - "무한개발에 민중생존 무너져"(00. 11. 1 1면 1727호)/185

- 개발논리에 떠밀린 지역주민의 삶 - 새만금, 본전포기가 현명한 처사(00. 11. 4 2면 1730호)/193
- 새만금 백지화 촉구, 범종교인 선언(00. 11. 15 2면 1737호)/208
- 누구를 위해 갯벌 막는가? - 주민·사회단체들, 중요공원서 집회(00. 11. 17 2면 1739호)/212
- 새만금 반대 사회단체 대표들 단식 - 여야의원, 새만금 보류 건의(00. 12. 21 2면 1763호)/265

해외소식

- '분쟁'으로 신음하는 말루쿠 - 평화는 멀리 있다, 국제사회 관심 절실(00. 7. 29 1면 1666호)/43
-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아동 -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(00. 8. 5 2면 1671호)/56
- 동성애금지에 당한 전 말레이 부총리(00. 8. 12 1면 1676호)/65
- '유엔 선주민의 날' 기념행사 열려: "선주민, 정체성을 찾고 싶다"(00. 8. 12 2면 1676호)/66
- 미 대선에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(00. 8. 19 2면 1679호)/72
- '관용과 다양성: 21세기를 위한 비전' - 메리 로빈슨, 넬슨 만델라(00. 9. 1 2면 1688호)/92
- '민중정상회의'에 귀 기울여라(00. 9. 9 2면 1694호)/105
- 구타·살해 위협 속의 소년병들 - 내전 겪고 있는 시에라리온(00. 9. 16 2면 1696호)/109
- 시애틀에서 프라하로(00. 9. 23 2면 1701호)/119
- 유린당한 프라하의 평화시위 - 체코 당국 과잉진압, 850명 연행(00. 10. 12 2면 1713호)/146
- 중동사태 관한 국제여론 "국제인권기준 위반한 민간인 발포"(00. 10. 14 2면 1715호)/150
- 휴먼라이츠워치 선정, 2000 인권지킴이(00. 11. 18 2면 1740호)/214
- 또 하나의 동티모르, 아체(00. 11. 25 2면 1745호)/224
- 미국의 가면을 고발하는 사형수 '무미아'(00. 12. 2 2면 1750호)/237
- <기고>동티모르, 미래를 위한 끝나지 않은 투쟁 - 최준석 민변 활동가(00. 12. 8 2면 1754호)/245
- 독립 동티모르를 어떻게 건설할까?(00. 12. 28 2면 1767호)/273

기타

- <자료> 국제앰네스티(AI) 연례 보고서 - 남·북한 99년도 인권상황(00. 7. 22 2·3면 1661호)/32
- 당신의 정의와 평화가 산처럼 일어선다 - 민중의 벗, 로벨도 신부 추도식(00. 8. 1 2면 1667호)/48
-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방한 - 국가인권기구, 국가보안법, 탈북 난민 등 관심(00. 8. 9 1면 1673호)/59
- 인권현안 '교착상태' 풀릴까? - 유엔인권고등판무관, 인권단체 면담(00. 8. 11 2면 1675호)/64
- 문정현 신부, 뒤늦게 피소(00. 8. 23 1면 1681호)/75
-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-유엔사회권위원회, "한국모델 지속가능한가?"(00. 9. 5 1면 1690호)/95
- 인권하루소식 창간 7주년 - "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 없다" 재다짐(00. 9. 7 1면 1692호)/99
- 인권하루소식을 위한 쓴소리 모음(00. 9. 7 1면 1692호)/99
- "인권과제 실현에 노력하길" - 인권기구 공대위, 노벨상 관련 논평(00. 10. 14 2면 1715호)/150
- <성명>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부처 -인권운동사랑방(00. 10. 14 3 1715호)/151
- 구호만 요란했던 경찰 '인권실천대회' - 구체적 인권개선대책은 없어(00. 10. 24 1면 1721호)/167
- <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지>(00. 11. 30 별지 1748호)/231
-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 뉴스(00. 12. 9 2~4면 1755호)/247
- 지학순정의평화상에 이부 솔라미 - 인도네시아 대량학살 진상규명(00. 12. 22 1면 1764호)/266

· 그림으로 푸는 '2000년 인권 10대 뉴스 배우기'(00. 12. 29 4면 1769호)/277

▷강신욱 대법관 임용 반대운동

- '강신욱은 절대 안돼!' - 참여연대, 대법관 후보자 인사평가서 발표(00. 7. 4 1면 1648호)/4
- <자료>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- 출처: 참여연대(00. 7. 4 2면 1648호)/5
- 각계 108인, 강신욱 반대- "강 검사 입성하면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"(00. 7. 5 1면 1649호) /7
- 강신욱 반대 넘어 진실규명으로 - 대법관 인사청문회, '유서사건' 공방(00. 7. 8 1면 1652호)/13
-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계(00. 7. 8 2면 1652호)/14
- "대법원 판결, 누가 믿고 따를까?" - 강신욱 검사, 결국 대법관 인준(00. 7. 11 1면 1653호)/15

▷군산 매춘업소 화재사건

- 1평 남짓한 쪽방에 쇠창살까지 - 군산 화재사건, 매춘여성 비참한 죽음(00. 9. 23 1면 1701호)/119
- <기고>매춘여성의 죽음과 검찰의 수사 - 김영옥 평화와인권 편집장(00. 10. 11 2면 1712호)/144

▷신자유주의 · 아셈 반대투쟁

- <인터뷰> 박하순(WTO국민행동 집행위원) "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"(00. 10. 13 1면 1714호)/147
- <인터뷰> 김유경(인권실천시민연대) "인권단체, 아셈간담포럼 탈퇴"(00. 10. 13 1면 1714호)/147
- 아셈관련 민간단체 주요행사(00. 10. 18 1면 1717호)/155
- <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> ① WTO, IMF, 아셈(00. 10. 18 2면 1717호)/156
- <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>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(00. 10. 19 2면 1718호)/159
- 인권단체들, 아셈 시위현장 불법검문 등 적극 대응키로(00. 10. 20 2면 1719호)/162
- 민주노총, 강남 집회 강행 예정 - 집회금지 에 이의신청 제기(00. 10. 20 2면 1719호)/162
- 송실대에서 아셈반대 전야제, 노동자 · 학생 5천여명 참여(00. 10. 20 2면 1719호)/162
- 아셈반대 시위에 곤봉세례 - 서울행동의날 선언문 채택돼(00. 10. 21 1면 1720호)/164
- <인터뷰> 아셈 반대한 해외인사들 "신자유주의는 시장만의 발전"(00. 10. 21 2면 1720호)/165
- <인터뷰> 이종희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"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저지"(00. 10. 25 2면 1722호)/171

▷연재 : 인권소식지와의 만남

- ① 다산인권(00. 10. 6 2면 1709호)/138
- ② 주간 울산인권소식(00. 10. 7 2면 1710호)/140
- ③ 제주인권지기(00. 10. 11 2면 1712호)/144
- ④ 평화와 인권(00. 10. 12 2면 1713호)/146

▷인권영화제

- "고발한다! 인권의 이름으로" - 제5회 인권영화제 10월 27일 개막(00. 10. 11 1면 1712호)/143
- <제5회 인권영화제 일정표>(00. 10. 17 별지 1716호)/154
- <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>① '미국의 얼굴'(00. 10. 18 별지 1717호)/157
- <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>② 세계은행 부수기, 평화의 횡방꾼-미군(00. 10. 19 별지 1718호)/160
- <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>③ 게바라...동성애...어린이의 권리(00. 10. 20 별지 1719호)/163
- <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>④ 억압받는 사람들 ... 세계민중(00. 10. 21 별지 1720호)/166
- <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>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(한국작-1)(00. 10. 24 별지 1721호)/169

- <제5회 인권영화제 부대행사> 특별한 이야기마당(00. 10. 25 별지 1722호)/172
- <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>⑥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(한국작-2)(00. 10. 26 별지 1723호)/175
- 수원인권영화제 10월 27-29일 열려(00. 10. 26 2면 1723호)/174
- <인터뷰> 사이트 케도 감독 "이라크 경제붕괴, 민중들 사경으로"(00. 10. 27 2면 1724호)/177
- 인권영화제 상영일정표(00. 10. 28 2면 1725호)/179
- <제5회 인권영화제 개막일 표정> 1천5백 가슴에 불빛된 '체 게바라'(00. 10. 28 별지 1725호)/180
-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(00. 10. 28 별지 1725호)/180
- <제5회 인권영화제 둘째 · 셋째날> '대지의 소금'은 이화여대에(00. 10. 31 별지 1726호)/183
- <인터뷰> 태준식(올해의 인권영화상 수상, 「인간의 시간」 감독)(00. 11. 2 1면 1728호)/188
- <인터뷰> 김정아(인권영화제 기획) "소외된 이웃에 찾아가는 영화제로"(00. 11. 2 2면 1728호)/189
- 전주인권영화제 오늘 개막(00. 11. 15 2면 1737호)/208
- 제1회 울산인권영화제, 11월 30일부터 울산대에서(00. 11. 30 2면 1748호)/230

인권하루소식 고정란

▷논평

- 의사폐업과 호텔롯데의 '부적절한 관계'(00. 7. 1 1면 1647호)/1
- '강신욱 대법관 만들기'에 공모하는 그대들에게(00. 7. 8 1면 1652호)/13
- '갈등'을 '전쟁'으로 만들지 말라(00. 7. 15 1면 1657호)/23
- '불법정보'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(00. 7. 22 1면 1661호)/31
- 독재자의 집을 꿈꾸는가(00. 7. 29 1면 1666호)/43
- 정치범 사면 최소한, 정치꾼 사면 최대한(00. 8. 5 1면 1671호)/55
- 단병호를 돌아보라(00. 8. 12 1면 1676호)/65
- 의사 폐업 사태에 근본 처방을!(00. 8. 19 1면 1679호)/71
- 인권위원회, 검찰은 손을 떼어라(00. 8. 26 1면 1684호)/81
- 장기수를 북으로 보내며(00. 9. 2 1면 1689호)/93
- '선생님 사랑해요' 그 이면의 이야기(00. 9. 9 1면 1694호)/104
-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(00. 9. 23 1면 1701호)/119
- 동성애자에 대한 '상식'의 폭력을 멈춰라(00. 9. 30 1면 1706호)/130
- 두발 자유화의 의미를 생각한다(00. 10. 7 1면 1710호)/139
- 아셈을 반대하는 이유(00. 10. 14 1면 1715호)/149
-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절규 외면말라(00. 10. 21 1면 1720호)/164
- 임박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하여(00. 10. 28 1면 1725호)/178
- 인간중심의 개발을 위하여(00. 11. 4 1면 1730호)/192
- 인권은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 - 전태일 열사 30주기에 부쳐(00. 11. 11 1면 1735호)/202
- 청소년보호법이 '독점'하려는 것(00. 11. 18 1면 1740호)/213
- 에바다에 민주적 이사회를(00. 11. 25 1면 1745호)/223
- '인권대통령'의 두 얼굴(00. 12. 2 1면 1750호)/236
-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은 범죄행위(00. 12. 16 1면 1760호)/258
- 이제 한통 계약직 노조의 파업에 연대하자(00. 12. 23 1면 1765호)/268

▷인권서평/인권이야기

- '행복한 왕자'와 에스키벨과... 강금실 변호사(00. 7. 4 3면 1648호)/6
- 정신 - 김규향 아웃사이더 주간(00. 7. 11 2면 1653호)/16
- 학교에 안나가도 될 권리 - 공선옥 소설가(00. 7. 25 2면 1662호)/35
- 길 떠나는 할아버지들 - 이제훈 한겨레 기자(00. 8. 8 2면 1672호)/58
- 압력집단과 인권 - 조효제 성공회대 시민사회단체학과 교수(00. 8. 12 2면 1676호)/66
- 미결수와 수의 - 강금실 변호사(00. 8. 22 2면 1680호)/74
- 쾌도 단상 - 김규향 아웃사이더 주간(00. 8. 29 2면 1685호)/84
- 학교와 종교의 자유 - 박복선 우리교육 편집장(00. 9. 5 2면 1690호)/96
- 장애인에게 충고하지 말지어다 -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(00. 9. 19 2면 1697호)/111
- 도보권도 인권이다 - 정재숙 한겨레 기자(00. 9. 26 2면 1702호)/122
- 확산범 - 이재승 국민대 법대 교수(00. 10. 3 2면 1707호)/133
- 오늘의 말말말...사라져야 할 말- 정주연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활동가(00. 10. 10 2면 1711호)/142
- 내 이름은 비정규직 - 하종강(00. 10. 17 2면 1716호)/153
- 영화 한 편을 볼 권리 - 정재숙(00. 10. 24 2면 1721호)/168
-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- 이재승(00. 10. 31 2면 1726호)/182
- 운동가의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 - 정주연(00. 11. 7 2면 1731호)/195
- 대우채권단과 언론의 어리석은 선택 - 하종강(00. 11. 14 2면 1736호)/206
- 수첩을 지우며 - 정재숙(00. 11. 21 2면 1741호)/216
- 권리 위에 잠든 자 - 이재승(00. 11. 28 2면 1746호)/226
- 그 아이의 눈에 생기를 담는 길 - 정주연(00. 12. 5 2면 1751호)/239
- 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- 하종강(00. 12. 12 2면 1756호)/251
- 세밑 잡설 - 정재숙(00. 12. 19 2면 1761호)/261
- 희망권 - 이재승(00. 12. 27 2면 1766호)/271

▷인권간행물

- 「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: 불안정노동연구」 사회진보연대 지음(00. 7. 5 1면 1649호)/7
- 「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」 정인섭 지음(00. 7. 12 2면 1654호)/18
- 「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」 지문날인 거부 224+(00. 7. 26 2면 1663호)/37
- 「법을 알면 권리가 보인다」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 펴냄(00. 8. 23 1면 1681호)/75
- 「대한변협 '99 인권보고서(제14집)」(00. 8. 30 2면 1686호)/86
- 「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」 「21세기의 인권 1, 2」(00. 10. 26 2면 1723호)/174
- 「인권은 교문앞에서 멈춘다」 배경내 지음(00. 11. 9 2면 1733호)/199

▷만화사랑방

- 준법서약서와 입국거부(00. 7. 7 1면 1651호)/11
- 대 테러진압 전투경찰 롯데호텔 노동자에 폭력 휘둘러(00. 7. 14 1면 1656호)/21
- 미국식 생체 실험-소파·매향리·독극물방류(00. 7. 21 1면 1660호)/29
- 농민살려!(00. 7. 28 1면 1665호)/41
- 이 땅을 지키는 미국인은 누구인가?(00. 8. 4 2면 1670호)/54
- 특별사면 나왔습다(00. 8. 11 1면 1675호)/63

- 이산 가족된 농성노동자 가족(00. 8. 18 1면 1678호)/69
- 병 키우는 교도소 의료체계(00. 8. 25 1면 1683호)/79
- 진보넷 압수수색(00. 9. 1 1면 1688호)/91
- 정치 수배자의 추석(00. 9. 8 1면 1693호)/102
-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유린(00. 9. 16 1면 1696호)/108
- 무늬만 바꾸는 전투경찰(00. 9. 22 1면 1700호)/117
- '아웃팅' 당한 홍석천씨(00. 9. 29 2면 1705호)/129
- 경찰의 집회방해 및 사이버폭력(00. 10. 6 1면 1709호)/137
- 두발자유화와 청소년 인권(00. 10. 13 2면 1714호)/148
- 왜 군의문사인가?(00. 10. 20 1면 1719호)/161
-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(00. 11. 3 1면 1729호)/190
- 박정희 흉상철거(00. 11. 10 1면 1734호)/200
- 구조조정에 희생되는 노동자들(00. 11. 17 1면 1739호)/211
- 김삼석씨 보안관찰 판결(00. 11. 24 1면 1744호)/221
- 인권위원회 판 '심청과 뽕덕어멈'(00. 11. 30 1면 1748호)/229
- 경제5단체, '시국선언' 심보(00. 12. 8 1면 1754호)/244
- 노벨평화상과 국가보안법(00. 12. 15 1면 1759호)/256
- 삼성의 무노조 정책과 인권유린(00. 12. 22 1면 1764호)/266

▷이달의 인권하루소식

- 2000년 6월(00. 7. 1 2·3면 1647호)/2
- 2000년 7월(00. 7. 29 2·3면 1666호)/44
- 2000년 8월(00. 8. 31 2·3면 1687호)/88
- 2000년 9월(00. 9. 30 2·3면 1706호)/131
- 2000년 10월(00. 11. 1 2·3면 1727호)/186
- 2000년 11월(00. 12. 1 2·3면 1749호)/234
- 2000년 12월(00. 12. 29 2·3면 1769호)/275

▷주간인권흐름

- 2000년 6월 27일 - 7월 3일(00. 7. 4 3면 1648호)/6
- 2000년 7월 4일 - 7월 10일(00. 7. 11 2면 1653호)/16
- 2000년 7월 11일 - 7월 18일(00. 7. 19 2면 1658호)/26
- 2000년 7월 19일 - 7월 24일(00. 7. 25 2면 1662호)/35
- 2000년 7월 25일 - 7월 31일(00. 8. 1 2면 1667호)/48
- 2000년 8월 1일 - 8월 7일(00. 8. 8 2면 1672호)/58
- 2000년 8월 8일 - 8월 21일(00. 8. 23 2면 1681호)/76
- 2000년 8월 22일 - 8월 28일(00. 8. 29 2면 1685호)/84
- 2000년 8월 29일 - 9월 4일(00. 9. 5 2면 1690호)/96
- 2000년 9월 15일 - 9월 17일(00. 9. 19 2면 1697호)/111
- 2000년 9월 17일 - 9월 23일(00. 9. 26 2면 1702호)/122
- 2000년 9월 24일 - 10월 8일(00. 10. 10 2면 1711호)/142

- 2000년 10월 9일 - 10월 15일(00. 10. 17 2면 1716호)/153
- 2000년 10월 16일 - 10월 22일(00. 10. 24 2면 1721호)/168
- 2000년 10월 23일 - 10월 28일(00. 10. 31 2면 1726호)/182
- 2000년 10월 29일 - 11월 4일(00. 11. 7 2면 1731호)/195
- 2000년 11월 5일 - 11월 12일(00. 11. 14 2면 1736호)/206
- 2000년 11월 13일 - 11월 19일(00. 11. 21 2면 1741호)/216
- 2000년 11월 20일 - 11월 26일(00. 11. 28 2면 1746호)/226
- 2000년 11월 27일 - 12월 3일(00. 12. 5 2면 1751호)/239
- 2000년 12월 4일 - 12월 10일(00. 12. 12 2면 1756호)/251
- 2000년 12월 11일 - 12월 17일(00. 12. 19 2면 1761호)/261
- 2000년 12월 18일 - 12월 26일(00. 12. 27 2면 1766호)/271

인권하루소식 합본 15호

펴낸날: 2001년 3월

펴낸곳: 인권운동사랑방

주소 (110-522)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8-29

전화: 02-741-5363 / 팩스: 02-741-5364

통신: rights(천리안) / 인권사랑(나우누리)

이메일: humanrights@sarangbang.or.kr

홈페이지: www.sarangbang.or.kr